

주제어: 라디오 드라마, KBS, CBS, MBC, DBS, TBC, 청취자, 신인 발굴 사업, 현상모집, 학생방송경연대회, 연속극, 단막극, 홈드라마, 다큐멘터리 드라마

1960~70년대 초기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

윤금선*

<차례>

1. 머리말
2. 1960~70년대 초기 라디오 방송
 - 2.1. 라디오 편성 동향과 드라마 경쟁
 - 2.2. 신인 발굴 사업의 확대
3. 라디오 드라마의 실제
 - 3.1. 멜로드라마 편중의 연속극
 - 3.2. 예술성 지향의 단막극
 - 3.3. 봄을 이룬 홈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드라마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는 그야말로 라디오 전국시대로서 각 방송사별로 다수의 방송극이 전파를 뒀던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청취자의 호응도 높았다. 이번 연구는 당대의 전반적인 방송극의 흐름을 살펴 보려는 일종의 시론(試論)에 속한다. 이의 구체적인 검토를 위하여 두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며 분석하였다. 첫째로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 라디오 드라마의 편성 비중과 각 방송사의 신인 발굴 사업에 대하여 살폈다. 이 시기에는 KBS, CBS, MBC, DBS, TBC 등 기존 국영방송사 뿐만 아니라 각종 민영방송사의 개국으로 라디오 경쟁시대였다. 특히 청취자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라디오 드라마의 경쟁은 치열하기도 했다. 이에 각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 현황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방송사별 현상모집과 학생 방송 경연대회의 실상을 검토하였다.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도와 중요성의 증가로 방송작가의 양성이 활발하였고 이에 신인 극작가의 증가는 물론 라디오 드라마가 풍부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로는 각 방송사의 라디오 드라마의 실체를 고찰하였다. 여기에서는 방송사별 연속극과 단막극, 홈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개략적으로 제시하며 그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1. 머리말

본고는 1960년대 초기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당시 방송 환경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방송사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민간방송 시대를 맞이하였다. 즉 KBS 국영방송과 CBS 기독교방송이 기존해 있는 상황에 MBC, DBS, TBC 등 새로운 민간 상업방송국이 속속 개국함으로써 방송사가 증가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방송 문화가 개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 방송사의 시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과 광고 시장도 함께 성장해 나갔다. 특히 광고 시장의 확대는 방송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라디오 수신기의 원활한 보급과 광고료 수익으로 인하여 민간 상업 방송은 성장세를 가져왔고 당시 현대 대중매체로서 라디오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며,¹⁾ 특히 청취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라디오 드라마를 둘러싼 방송사간의 경쟁도 치열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며 1960년대 초기를 기점으로 하여 드라마의 주도권이 TV로 넘어가는 1970년대 초까지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첫째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 라디오 드라마의 편성 비중과 각 방송사의 방송극 분야 신인 발굴 사업에 대하여 살폈다. 위에서 제시했다시피 이 시기는 KBS, CBS, MBC, DBS, TBC 등 기존 국영방송사 뿐만 아니라 각종 민영방송사의 개국으로 라디오 경쟁시대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전임강사

1) 최창봉·강현두, 『우리 방송 100년』, 현암사, 2002, 161면.

였다. 특히 청취자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라디오 드라마의 경쟁은 치열하기도 했다. 이에 각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 현황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도와 중요성의 증가로 방송작가의 양성과 새로운 작품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각 방송사의 현상모집과 학생 방송 경연대회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였다. 둘째로는 각 방송사의 라디오 드라마의 실체를 고찰하였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는 그야말로 라디오 시대로서 각 방송사별로 다수의 방송극이 전파를 탔던 시기이다. 본고에서는 각 방송사의 드라마 수가 방대하여 지면의 한계상 주요 방송극 목록의 제시와 함께 전반적인 전개 양상만을 개략적으로 살폈다. 향후 방송극별로 정치한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는 전반적인 방송극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종의 시론(試論)에 속함을 밝히는 바이다.

특히 본고의 연구 대상을 다시 한번 밝히면, 라디오 드라마의 전성기였던 1960년대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으며, 1970년대는 주로 1960년대 말부터 이어져 온 장기화된 드라마나 봄을 이룬 다큐멘터리 드라마 부분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1970년대의 경우 드라마 개별 목록 제시에 있어서는 주로 초기 드라마를 다루었지만 특별한 경우 1975년도까지를 한계선으로 잡았다. 또한 본고에서는 그 성격과 형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드라마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멜로드라마 중심의 ‘연속극’, 연속물 이면서도 그 성격을 달리하여 가정 내의 일상사를 다룬 ‘홈드라마’,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예술성을 지향했던 ‘단막극’, 실제 현장이나 사건의 취재가 이루어진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으로 변별하여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2. 1960~70년대 초기 라디오 방송

2.1. 라디오 편성 동향과 드라마 경쟁

여기에서는 먼저 구체적인 실례들을 통하여 각 방송사의 분야별 편성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69년도 추계 개편 당시 라디오 방송 현황을 보면 국영방송, 민영방송 종합 편성 비율이 보도가 15.5%, 교육·교양 11.4%, 정보 13.7%, 음악 31.6%, 드라마 14.1%, 오락 6.3%, 종교·대공 기타 부문이 7.5%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에서 음악 부분을 제외하면 드라마의 비율은 높은 편에 속했다. 왜냐하면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범주 안에는 <즐거운 우리집>, <김삿갓 방랑기>(KBS) 등 사회 계몽을 위해 극화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드라마의 비율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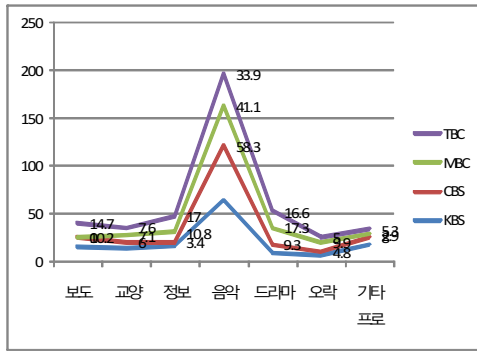
[표 1]은 이를 다시 각 방송사별로 도표화 해본 것이다. 여기에서 1969년 방송사별 드라마 부문만을 보면 국영방송 KBS와 기독교방송 CBS는 비슷한 수치이며, 민간방송인 MBC와 TBC는 비율이 높은 축에 속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1960년대 전반에서 1970년대 초기까지 시기별로 다소의 차이를 지닌다 해도 유사한 비율이었다. 또한 방송극의 경우 각 방송사마다 황금시간대에 배치함으로써, 방송사 간의 드라마 경쟁도 과열된 시기였다.

[표 1] 1969년 각 방송사 라디오 추계 편성 비율

부문	KBS	CBS	MBC	TBC
보도	15.7	10.2	15.8	14.7
교양	14.6	6.0	7.1	7.6
정보	17.3	3.4	10.8	17
음악	63.7	58.3	41.1	33.9
드라마	9.2	9.3	17.3	16.6
오락	6.2	4.8	9.9	5
기타 프로	17.8	8.0	2.9	5.3

2) 放送年鑑編纂委員會, 『韓國放送年監 1971』, 韓國放送會館, 1970, 69면.

(1) 1966년 10월의 프로그램 개편 때까지 하더라도 TBC의 連續劇은 7시 30분, 8시 30분 그리고 9시 30분에 각각 放送되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의 4월 改編과 함께 東亞放送의 連續劇이 8시 뉴스에 붙여 편성되자 TBC에서는 고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다. 말하자면 TBC에서 매시간대 30분에 連續劇이 시작되는 반면 DBS에서는 매시간 20분부터 連續劇이 放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連續劇을 즐기는 청취자들은 매시간대 30분부터 기다리기에 앞서 20분부터 10분 동안 連續劇을 듣다보면 30분부터 시작하는 連續劇을 듣기 위해 다이얼을 돌리거나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 결국 DBS의 連續劇에 맞서기 위해 TBC의 連續劇 시간대도 20분대로 옮기게 되었다.

「時間帶 옮긴 드라마 競爭」(『韓國放送史』(1977), 821~822면)

(1)은 방송 경쟁의 일례를 보여주는 것인데, 문화방송과 동아방송 등 민간 상업방송이 기존에 있는 현실 속에서 뒤늦게 출발한 동양방송은 설립 초기부터 동아방송을 경쟁 상대로 삼고 있었다.³⁾ 그러기에 청취자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제작하려는 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시간대의 편성에 있어서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 좋은 실례가 연속극 시간대의 변경이다. 인용문에서 보듯이 시간대를 옮겨 배치한 TBC(1967년 8월 재편성)의 연속극은 결국 6개월 후 DBS의 연속극을 누를 수 있게 되었고 1967년 하반기 프로그램 개편에서는 동아방송의 연속극 시간대가 40분대로 밀려나 있었다.⁴⁾

3) 文化放送社, 『文化放送社史』, 文化放送社, 1982, 94면.

한편 1968년 『방송문화』 9월호에서는 1966년도부터 1968년도 사이에 각 방송사에서 전파를 탔던 연속극의 방송 편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966년도에 153편, 1967년도에 143편, 1968년도에는 160편이나 되었다. 이는 라디오 드라마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비중이 컸음을 반영한다. 즉 라디오 드라마는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매년 평균 150편이 넘게 방송될 만큼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이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부터 1950년대, 그리고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까지 일관된 흐름이기도 하다.⁵⁾

위에서 보듯이 특히 1960년대는 라디오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송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61년 12월 KBS-TV가 개국을 본 이후 1960년대에 2개 민영방송의 텔레비전이 세워졌지만 1966년에 비로소 10만대를 돌파해 1960년대 말까지 텔레비전 수신기 보급수는 30만대에 못 미쳤고 1972년 말까지만 해도 95만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라디오 수신기 보급은 4백만 대에 이르러 1970년대 초까지 텔레비전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라디오 드라마는 서민 대중의 인기 정점에 있었다.⁶⁾

그러면 여기에서 그 구체적인 양상을 『주간방송』(1964.10.12~18)에 제시된 드라마 편성표를 통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아래 [그림 1]에 표시된 부분은 1964년 10월 13일자(화) <연예와 오락> 부문으로서 방송 시간대와 드라마명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방송국은 KBS 제1방송(KA), KBS 제2방송(CA), MBC 문화방송(KV), DBS 동아방송(KJ), RSB 라디오서울(KC-TBC), CBS 기독교방송(KY) 등으로서 순수 방송국을 비롯하여 방송극화한 입체낭독 등의 시간대가 서로 얹다투어 배치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4) 韓國放送公社, 『韓國放送史』, 大韓公論社, 1977, 821~822면.

5) 최창봉·강현두, 앞의 책, 163면.

6)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418면.

[그림 1]에서 드라마 제목을 보면 오전 7시대에 KC의 <아빠 하고 나하고>(7:05), KJ의 <오늘도 푸른 하늘>(7:20), KV의 ‘흠 드라마’ <해바라기 處女>(7:25 최일수 작, 김지현 연출), KC의 ‘10분 연속극’ <꿈꿈이와 덜렁이>(7:30 김영수 작, 이정재 연출) 등이 방송되고 있었으며, 정오 12시대에 KV의 <여보 나요>(12:45), 오후 6시대에 KV의 ‘연속모험극’ <明洞 꽃집의 秘密>(6:00 백결 작, 김지현 연출), 오후 7시대에 KV의 ‘연속 코미디’ <다리 밑의 靑春>(7:05), 오후 8시대에 KV의 ‘연속무대’ <상속자>(8:00), KJ의 ‘연속방송극’ <家庭問答>(8:01), KA의 ‘라디오 극장’ <南과 北>(8:30 한운사 작, 홍두표 연출), KC의 ‘8시반 연속극’ <女子的 싸움>(8:30 김석야 작, 유신호 연출), 오후 9시대에 KV의 ‘연속방송극’ <성난 독수리>(9:00) 등으로 방송극이 연달아 방송되고 있으며, 특히 황금시간대에 집중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964년 10월 17일(토) 편성표를 통해 주말 방송극 프로그램을 보면 오후 8시대까지는 거의 평일과 같은 방송극의 연속이며, 오후 9시대부터 주말 방송극으로 채워져 있다.

(2) 9:05 [KJ] 連續史劇 <向日花>(28/9) 9:10 [KA] 名作劇場 <變身>/ 9:30 [KV] 週末連續劇 <그 전날 밤>(3회) 全鳳健 作 沈英植 演出/ 9:35 [KJ] 週末連續劇 <文定王后>(19회) 李石情 作 朴東根 演出/ 9:40 [KA] 連續 立體劇



[그림 1] 『주간방송』가 방송 부분별 평일 편성표 (1964.10.12~18)

讀 <고갯길>(5)/ 10:00 [KC] 土·日 連續劇 <스카이라운지의 姜社長>/ 10:20 [KV] <絶望은 없다>

『주간방송』(1964.10.15)

(2)에서 보다시피 주말연속극의 배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8시대까지 평일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늦은 9시대부터 주말 드라마가 시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각 방송사마다 같은 시간대에 유사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방송극은 물론이고 연속소설, 입체낭독 등의 이야기가 있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방송 경쟁 시대의 뿌리깊은 역사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2.2. 신인 발굴 사업의 확대

2.2.1. 방송극 현상모집과 신인 양성

위에서 방송 편성의 예들을 소개하는 가운데서도 드러나지만,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방송사간의 드라마 경쟁이 치열했던 시기이다. 또한 이와 아울러 각 방송사마다 새로운 방송극의 모집과 이에 따른 신인 발굴 사업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3) KA에서 放送의 향상과 아울러 역량있는 신인작가를 널리 발굴하기 위하여 매년 연례행사의 하나로 실시해 온 것인데,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비해 뚜렷한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총 응모자 107편 중에서 당선작 한편만 채택되었다고 한다. 심사위원으로는 작가 김영수, 한운사, 이호원 제씨가 수고하셨는데 新人들에게서는 만족할만한 작품이 없어 기성인 沈英植氏가 당선될 것이라 한다. 沈英植氏는 성우로서 방송에 참여, 현재 연출가로 활약하고 있는데 방송 드라마도 많이 집필했다.

「沈英植 作 <길>이 當選 (『주간방송』, 1965.1.25~31)

KA에서는 방송의 향상과 역량있는 신인작가의 발굴을 위하여 매년 방송극 현상모집을 연례행사의 하나로 실시해 왔다. 이미 1958년부터 신인작품 공모를 시작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초기 단막극 공모에서 더 나아가 연속극과 방송소설 등에 걸쳐서도 현상모집을 실시하는 등 신인 방송작가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확대하였다. (3)은 1965년도 연속극 당선작 <길>(심영식 작)에 대한 기사문으로서, 당시 심사위원은 김영수, 한운사, 이호원 등이 담당했다. 총 응모작이 107편이나 되고 있어 방송극 창작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짐작케 한다. 참고로 아래 [표 2]는 1961년부터 1973년까지 KBS 방송극 현상모집 당선작과 작가를 정리한 것이다.)

신춘 연속 방송극 현상모집
 KA에서 16만원의 현상금으로 서울중앙방송국에서는 방송의 향상과 아울러 역량 있는 신인작가를 널리 발굴하기 위하여 16만원의 현상금으로 다음과 같은 요령에 의하여 신춘 연속방송극을 현상 모집한다.
 (1) 모집요령
 ㉠. 종별 연속방송극 나. 주제 및 소재 주제와 소재는 자유로 하며 전권하고 권의권선 내용으로 방송에 적합할 것. ㉡. 길이 20분 방송극 연속 2회 (10~20회 800~900) ㉢. 작의 및 경계 응모작품에는 출판되지 않고 소 정명을 명기하고 200자 원고지 5매 이내의 작의와 20매 이내의 줄거리를 첨부할 것.
 (2) 상 금
 ㉠. 당선작 1회 10만원 나. 가작 1회 3만원 ㉡. 장려상 3회 각 1만원
 (3) 마감일시 서기 1964년 12월 1일
 (4) 보낼 곳 서울중앙방송국 현상과 문예계
 (5) 심사위원 서울중앙방송국 및 방송극 작가 (심사위원 명단은 당선작과 더불어 발표함)
 (6) 판권 당선작품의 판권은 방송이 끝난 3개월 이후 원작자에게 환부함
 (7) 당선작 발표 1965년 1월 중순

[그림 1] 「신춘 연속방송극 모집」 (『주간방송』, 1964.10.19~25)

[표 2] KBS 방송극 현상 모집 당선작(1961-1973)

연도	당선작 및 작가
1960	당선작 <해바라기 家族>(김기팔 작)
1961	연속극 당선작 없음. 단막극 당선작 <크라운>(이문주 작), <살아있는 無意識>(박서림 작)
1962	총 공모 151편, 당선작 상금 1백만원, 20분 20회분. 당선작 <關下>(정건진 작), 장려상 <몸부림치던 都市>(송숙영 작), <農村이란 微笑>(백광희 작), <날개를 다오>(윤혁민 작)
1964	총 공모작 110편, 20분 20회분. 당선작 10만원. 당선작 <마보와 천치>(김광섭 작), 가작 <遺産 없는 子孫들>(이희복 작), 장려상 <나갈 수 없는 水平>(이기명 작), <스텐바이>(전홍 작), <등대의 불을 켜라>(박도원 작), 단막극 당선작 <赤道 無風地帶>(전홍 작)
1965	상금 10만원. 20분 20회분. 당선작 <길>(심영식 작)
1966	상금 20만원. 20분 20회분. 당선작 <아오지의 포포>(최풍 작)
1967	상금 20만원. 20분 20회분. 당선작 <이브의 후에들>(조남사 작) 단막극 가작 <지하호>(전향명 작)

1968	당선작 상금 25만원, 20분 30회분. 봄 당선작 <기도하는 도미니카>(김항면 작), 가작 <鐵道員>(박신희 작), 장려상 <잃어버린 樂園>(이기명 작), 가을 당선작 <平和스런 날의 作別>(이기명 작)
1969	당선작 상금 30만원, 당선작 <아빠 선생님>(정승아 작)
1970	당선작 상금 30만원. 가작 <뽕아>(고영훈 작), <아스팔트>(박성화 작)
1971	당선작 상금 30만원. 당선작 <아벨의 반항>(이수화 작)
1972	당선작 상금 50만원. 당선작 <돌아오지 않는 江>(배명숙 작)
1973	당선작 상금 30만원. 가작 <靑磁빛은 왜 푸른가>(한유림 작)

KBS는 현상공모를 통한 신인 극작가의 배출과 더불어 연출가를 따로 공모하기도 했다. 당시 민간방송에서는 입사 채용 시험을 거친 프로듀서 가운데서 드라마 부문에 배속된 요원들이 소정의 훈련을 거쳐 연출을 맡았다. 그러나 KBS에서는 따로이 연출가 분야만을 공모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1961년 KBS 연출가 공모를 통해 데뷔한 연출가들은 곽현(곽복현), 김인환, 채현국, 김재충, 김병희, 이병협, 김현철, 김갑식, 이동희, 백전교 등 10명이었다. 그리고 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전속성우도 선발 양성했다. 1960년 이전까지 특기를 비롯해서 4기까지 전속성우를 모집 양성하여 기성 성우로 배출해냈고, 1961년 이후 1972년까지 성우 5기생부터 14기생을 양성했다.⁸⁾

한편 MBC도 개국년도부터 방송극의 현상모집을 실시하여 유능한 방송극작가의 양성을 꾀했다. 1961년 개국 기념으로 처음 실시한 100만원 고료 현상 공모에는 이성재 작 <골목안 風景>이 당선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1962년 개국 1주년 기념 공모에는 신명순 작 <밤에 찾아 온 손님>이, 1963년에는 백결 작 <유바리 張>을 비롯해서 1964년 김창훈 작 <문밖에서>, 1965년 이재우 작 <하얀 壁畫>, 1966년 김수영 작 <시슴의 戀歌>, 1967년 박도원 작 <새남터의 북소리>를 각각 당선작으로 냈다. 또 1968년 개국 7주년 공모에는 김수현의 데뷔작 <저 눈발에 시슴이>를 발굴함으로써 방송극계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⁹⁾

8)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428면.

9) 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 『文化放送三十年史』, 문화방송, 1992, 290면([표 3]은 이 책 290면 참조).

7) [표 2]는 『韓國放送史』(1977)와 『주간방송』(1964~1965), 당대 신문 자료들을 참조.

[표 3] MBC 방송극 현상 모집 당선작(1961~1975)

연도	당선작 및 작가
1961.12.2	MBC 라디오개국 기념 기념공모, 6만원 고료 당선작 <밤에 찾아온 손님>(신명순 작)
1962.12.2	개국 1주년 기념공모, 6만원 고료 당선작 <밤에 찾아 온 손님>(신명순 작)
1963.12.2	개국 2주년 기념공모, 연속방송극 당선작 <유바리 張>(백결 작)
1965.5	개국 3주년 기념공모, <문밖에서>(김창훈 작), 12월 개국 3주년 기념 <하얀 벽화>(이재우 작)
1966.12.2	개국 4주년 기념 공모, 2천만원 고료 당선작 <하얀 벽화>(이재우 작)
1967.12.2	개국 6주년 기념공모, 연속방송극 당선작 <새남터의 북소리>(박수현 작)
1968.12.2	개국 7주년 기념공모, 연속방송극 당선작 <저 눈밖에 사슴아>(김수현 작)
1969.12.2	개국 8주년 기념공모, 연속방송극 당선작 <하얀 호텔>(권오용 작)
1970.12.2	개국 9주년 기념공모, 연속방송극 당선작 <불타는 빙하>(고영훈 작)
1975.12.2	통합기념 공모 입선작 <白鳥>(김준일 작)

DBS도 개국 초기부터 신인 방송극 작가의 발굴을 위해 ‘20만원 고료 연속방송극’을 공모하였고, 1964년 4월 첫 회에 92개의 작품들이 응모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제1회 당선작인 <흐르지 않는 江>(신명순 작)은 광산 지대를 무대로 혈육을 찾는 한 젊은이의 인생 체험을 담은 작품으로 8시대 드라마로 방송돼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첫회 작품 심사는 주태익, 이호원, 최창봉이 맡았다. 또한 특별히 개국 7주년인 1970년에는 이를 기념해 단막극을 모집했는데 김우현의 <원색조명>이 당선작으로 김영동의 <도야지>가 가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¹⁰⁾

[표 4] DBS 방송극 현상 모집 당선작(1961~1972)

연도	당선작 및 작가
1964	<흐르지 않는 江>(신명순 작) -개국 기념 당선작
1965	<落照有情>(김창식 작) -당선작
1966	<惡人時代>(이상현 작) -당선작
1967	<비탈길>(유보상 작) -당선작
1968	<三六五夜의 집>(김정민 작) -당선작

10) 東亞日報社, 『東亞放送史』, 東亞日報社, 1990, 197면([표 4]는 이 책 195~197면을 참조).

1969	입선작 없음
1970	<원색조명>(김우현 작) -당선작, 7주년 기념 단막 드라마 공모로 대체, <도야지>(김영동 작) -장려상
1971	<미약王>(이경백 작) -장려상, <승리한 敗北者>(이규성 작) -장려상
1972	<생이 부르는 소리>(이기영 작) -당선작

TBC의 경우도 개국 전인 1964년 3월에 50만원 고료로 방송 문예작품을 공모한 결과, 주간연속극 부문에 김현우 작 <결혼 10주년>, 단막극 부문에 이민우 작 <수신제>가 당선작으로, 천희경 작 <펜 레터>가 가작으로 각각 당선되었고, 같은 해 11월 일일연속극 부문으로는 황대연 작 <살아 있는 낙엽>이 공모작으로 선정되었다.

각 방송사의 당선작들은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되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드라마를 발굴해내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신인 발굴의 결실을 보았는데, 이는 당시 라디오 드라마의 비중이 그만큼 높았고 이에 새로운 작가와 작품의 필요성이 보다 절실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상모집과 걸맞게 <방송문예>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창작론에 대한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4) KA <방송문예> (前) 7:30~7:50 방송극 작가 金熙昌氏로부터 방송극을 쓰고싶은 사람들에게 우선 알아두어야 할 기초지식이나 마음가짐, 그리고 소설을 쓸 때와 다른 점 등을 말해준다.

「방송문예 (『주간방송』, 1964.6)

KA에서는 <방송문예> 시간을 두고 1개월 단위로 주제를 정하여 테마별로 방송했다. 이 시간에는 인용된 내용처럼 ‘방송극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그 창작 방법론에 대해 방송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시간에는 우수 방송극을 선편하여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¹¹⁾

11) 「전진을 위한 제언」, 『주간방송』, 1965.1.31.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최요안 편저로 나온 『방송극 연구』 등의 작업 교본 및 라디오 대본의 출판 등을 볼 수 있는데, 196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홈·멜로드라마가, 1960년대 후반 이후로는 『광복 20년』 등의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출판되어 당시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그 성숙 정도를 짐작케 해 준다.¹²⁾

2.2.2. 학생 방송 경연대회

방송극 장려와 신인 발굴의 또 다른 사업으로 학생 방송 경연대회를 개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먼저 KBS의 경우, 이미 1955년에 ‘전국대학방송극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매년 연례행사로 꾸준히 실시하였는데, 1964년 제10회를 마지막으로 끝을 냈다.

[표 5] KBS 전국 대학방송극 경연대회

번호	연도	작품명	수상 대상	학교	비고
1	1956.8.12 (제2회)	<무덤의 電話>	이대섭 작, 이익 연출	서울대학	단체상 장려상 연기상
		<勿忘草>	라소운 작, 윤택락 연출	중앙대학	
		<勿忘草>	오정룡	중앙대학	
		<무덤의 電話>	이상병	서울대학	
		<森雨期>	오연환	신흥대학	
		<咀呪 만든 사람들>	황○아	동국대학	
2	1957.11.27 (제3회)	<붉은 장미를 그대 가슴에>		신흥대학	단체상 작품상 장려상 연출상 연기상
		<붉은 장미를 그대 가슴에>		신흥대학	
		<장난감 자동차>		중앙대학	
		<장난감 자동차>	박순명 연출	중앙대학	
			윤소림(신흥대), 오연환(신흥대), 위인경(중앙대), 임국희(성균관대), 이명환(중앙), 윤용숙(숙명여대)		
3	1959.12.1 (제5회)	<산울림 이야기>	김기팔 작, 사상완 연출	서울대학	단체상 작품상 연출상
		<푸른 기와집이 보이는窓>	허영자 작	숙명여대	
		<기록한 유산>	김태유 연출	대구대학	
4	1960.11.4 (제6회)	<江과 바람의 습소리>	강현구 작, 이명환 연출	중앙대학교	단체상 작품상
		<어느 人間 가족>	안재성 작, 박영수 연출	카톨릭대학	

12) 조항제, 『한국 방송의 역사와 전망』, 한울, 2003, 194면.

		<조용한 겨울에의 招待>	이정희 작, 서천석 연출	숙명여대	연출상
5	1961.12.23 (제7회)	<붉은 하늘>	신명순 작, 황기찬 연출	서울대학	단체상
		<그늘진 화환>	이창환 작, 이경구 연출	한양대학	작품상
		<太陽은 모두에게 주어지다>	김상돈 작, 한상규 연출	중앙대학	장려상
		<갈매섬과 어느 사랑의 애기>	문상기 작, 이건우 연출	서울대학	연출상
			최봉녀(동덕여대), 김찬익(단국대), 전순자(숙명여대), 채홍길(서울대), 최갑성(서울대), 강정숙(국민대), 이진수(충남대), 송재연(동아대)		연기상
6	1963.12.20 (제9회)	<물보래의 노래>	김민자 작, 홍기숙 연출	동덕여대	단체상
		<별의 의미>	박영웅 작, 신성치 연출	대구청구대	작품상
		<한송이의 흰백합화>	김태자 작, 신달자 연출	숙명여대	연출상
		<사신제>	김영복 작, 남궁영선 연출	충남대학	장려상
			국영실(동덕여대), 안영애(경희대), 이선영(한양대), 김인재(숙대), 한태욱(대구청구대), 이명식(충남대), 김종호(중앙대), 김학자(동국대)		연기상

[표 5]는 당대 신문 자료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대로 수상 결과를 제시해 본 것이다. 1회, 4회, 10회 내용은 발굴할 수 없었고 위의 내용은 제시할 수 있는 사항만을 정리한 것이다. 제8회 경연대회는 수상 작품명은 알 수 없으나 지방에서 5개교, 서울에서 19개교 등 24개교가 작품을 제출하여¹³⁾ ‘전국대학방송극 경연대회’의 인지도와 학생들의 방송극 창작 의욕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대회에서 단체상은 동덕여대가, 작품상은 한양대학이, 연출상은 청구대학이, 장려상은 숙명여대가 각각 차지하였다. 연기상은 9명이 입상하였고 그 명단은 박향자(동덕여대), 안초근(충청대), 이정선(동아대), 박징도(청구대), 박상자(숙명여대), 정형권(외국어대), 김인희(경기실업대), 김정호(중앙대) 등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매년 비슷한 학교들이 수상 대상에 오르고 있으며, 특히 동덕여대는 8회, 9회 연이어 단체상을 수상하고 있음이 특기 사항이다. 또한 주목할 것은 아마추어로서 시작된 대학 방송극 창작자들이 이후 방송계에 진출하여 활

13) 「24個校 參加 大學放送劇 콩쿨」, 『동아일보』, 1962.10.12.

발한 활동을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일례로 1956년 제2회 경연대회 연기상 수상작인 <테스트>는 한운사 작품으로서, 후에 한운사는 우리나라 방송극의 선두에 서서 다량의 작품을 집필한 작가였다. 마찬가지로 1959년 제 5회 경연대회의 단체상 수상작인 <산울림 이야기>는 김기팔 작이며, 1961년 제 7회 단체상 <붉은 하늘>은 신명순 작으로서 방송계에 진출하여 활약한 방송작가였다.

한편 DBS 동아방송도 개국 기념으로 ‘전국학생방송 콩쿨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생들의 방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송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타 방송사와 달리 고등부와 대학부로 나누어 개최했다. 분야도 방송극, 녹음구성, 디스크 자키, 음악연주, 공개방송 등의 작품을 공모해 최우수상을 비롯한 기획, 제작, 연기, 장려 부문의 입선작을 선정하였으며 수상 작품은 전파를 통해 일반 청취자에게 방송되었다. 제1회가 개최된 1964년에는 서울에서 고교가 17개, 대학교가 5개 등 22개교가 참가했고, 지방에서는 고교 3개교, 대학교 4개교 등 7개교가 참가했다. 1964년 2회에는 서울에서 고교가 16개, 대학교가 13개 등 29개교가, 지방에서는 고교 7개, 대학 2개 등 9개교가 참가했다.¹⁴⁾ 2회에는 지방보다 서울 참가교 수가 많고, 1회보다 대학부 참가교 수가 증가하였다. 특별히 1회에서 드라마 부문의 수상작만을 제시해 보면, 대학부 부문 최우수 작품상은 고려대의 <穴居記>가, 장려상은 대전실업대의 <몸부림치는 새벽>과 부산대의 <내일의 이미지>가 차지했고, 고등부의 최우수 작품상으로 인창고의 <독백>이, 장려상은 동성고의 <생활의 태생>이 각각 수상하였다.

참고로 [표 6]은 1964년도부터 1972년도까지 ‘전국학생방송 콩쿨대회’의 연도별 응모 작품 수 일람을 제시한 것이다.¹⁵⁾ 이를 보면 1960년대의 응모편 수 중 방송극의 비율이 높은 반면,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녹음구성

분야와 DJ 분야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창작 분야보다 기술 분야와 음악 분야가 더 선호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라디오 드라마가 TV 매체로 점차 넘어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으로 그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에 변동이 있게 된다. 즉 비율의 감소, 시간대 이동, 성격의 획일화 등이었다.¹⁶⁾ 이것은 텔레비전 보급에서 비롯된 청취자 상황의 변동과 그에 따른 청취율 감소가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MBC는 1977년 4월부터 ‘전국대학 방송작품 경연대회’를 열었다. 첫 번째 대회에서는 <大學生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했는데, 최우수 작품상(상금 20만원)은 고려대학교 방송극 <별주부 젊은이 찾아오다>가 차지했고, 우수 작품상(상금 10만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극 <Let's go 운명>이 수상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대회가 열렸다.¹⁷⁾

TBC에서도 대학생들의 신선한 감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학방송의 발전과 함께 방송 신인을 발굴할 목적으로 ‘대학방송 경연대회’를 시도했다. 1966년에 신설된 주간 단위의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 ‘캠퍼스 네트워크’를 콘테스트 형식으로 발전시켜 1969년 5월부터 ‘대학방송 경연대회’라는 프로그램명으로 대학 방송극 경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1970년 10월에는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방송사의 대외적인 연중행사로 고정시켰다. 부문별 실시는 1968년부터 실시되었는데 종합상으로 최

[표 6] DBS ‘전국학생방송 콩쿨대회’ 부문별 응모 작품 수

연도	방송극	녹음구성	DJ	기타	계
1964	13	8	8	16	45
1965	14	16	7	12	49
1966	15	12	19	11	57
1967	9	19	15	12	55
1968	25	17	18	10	70
1969	28	23	19	14	84
1970	21	42	24	8	95
1971	19	46	25	5	95
1972	22	28	25	8	83

14) 東亞日報社, 앞의 책, 174면.

15) [표 6]은 『東亞放送史』(1990), 174~175면, 198면을 참조.

16)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789면.

17) 文化放送社, 앞의 책, 440~441면

우수 작품상이, 부문상에는 녹음구성, DJ, 종합구성, 드라마 그리고 개인 상으로 기획, 구성, 제작(연출), 각본, 연기 등으로 나누어 심사하였다.¹⁸⁾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각 방송사마다 대학생 방송극 경연대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현상 공모를 통한 신인 발굴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며 더불어 라디오 드라마가 더욱 풍성해지는 결과를 낳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라디오 드라마의 실제

3.1. 멜로드라마 편중의 연속극

3.1.1. 각 방송사의 연속극 방송 현황

각 방송사의 연속극은 주간연속극과 일일연속극으로 나뉘어 방송됐는데, 여기에서는 지면상 방송사별 주요 드라마만을 중심으로 하여 그 특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KBS의 경우 1960년대의 작품 경향은 대개가 애정관계 혹은 도시 풍속도의 단면을 그려 청취자들의 흥미를 이끌어 나간 멜로드라마가 주를 이루었다.¹⁹⁾ 이후 1964년에는 KBS 연속극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라디오 극장》(7시대 40분)과 《KBS 연속극》(9시대 20분)이 편성되어 KBS의 주요 연속극 시간대를 차지하고 주 7회 청취자들의 인기 속에 방송되었다.

참고로 《라디오 극장》과 《KBS 연속극》의 주요 드라마명을 제시하면

[표 7], [표 8]과 같다.²⁰⁾

18)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825면.

19)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311면.

20) [표 7]과 [표 8], 그리고 아래 [표 9]는 『韓國放送史』(1977)와 『주간방송』(1964~1965), 당대 신문 자료들을 참조.

[표 7] 《라디오 극장》(1961~1973)의 주요 연속극

연도	제목 및 작가
1962	<먼둥이 트는 언덕>(백운성 작), <살림살이>(정진건 작), <뜨거운 악수>(김중희 작), <화려한 圓舞曲>(허창문 작)
1964	<어반장>(김차림 작), <새출발>(김창린 작), <아버지>(윤혁민 작), <한중의 쌀>(한석연 작), <漁村>(신명순 작), <바다>(김홍 작), <요술단지>(박영만 작), <소 사은 날>(김이석 작), <아들타령>(하유상 작), <동트는 漁村>(한석연 작), <우물안 개구리>(정진건 작), <수제미>(임택수 작), <꿈을 깨는 처녀>(백전교 작), <가뭇나룻>(최일수 작), <두부 한모 파 한단>(김영수 작), <再會>(이기명 작), <내가 받은 선물>(김민 작)
1965	<가난한 사람들>(김아 작), <꽃피는 마을>(김광섭 작), <산>(송숙영 작), <치맛바람>(김포천 작), <가정의 幸福>(이인석 작), <바다를 向하여>(박도원 작), <30리길>(양근승 작), <망>(윤혁민 작), <그림자>(최요안 작), <마지막 夜景>(김종달 작), <말없는 證人>(작), <火星人 來襲>(한락원 작), <新式 結婚式>(김원태 작), <발동선>(추식 작), <그리고 고향길>(하유상 작), <미인계>(최풍 작), <영판의 그날까지>(김중희 작), <낙도에도 햇벌이>(이진섭 작), <夫婦>(이영신 작)
1967	<섬마을 선생님>(이경재 작), <잃어버린 여름>(이호원 작), <이브의 후예들>(남지연 작), <친여름>(김진욱 작), <15年>(양근승 작), <나만이 알고 있다>(이희복 작), <소라의 꿈>(윤혁민 작)
1968	<그 이름>(이용찬 작), <鐵道員>(박신호 작), <平和스런 날의 작별>(이기명 작), <사랑의 壁畫>(주태익 작)
1969	<파도소리>(이경재 작), <하얀 遺書>(남지연 작), <성난 自畫像>(이용찬 작), <木蓮>(최풍 작), <별없는 星座>(김항명 작), <波濤를 삼킨 사나이>(전창식 작), <행운의 계단>(백전교 작), <청잔디 위에 들국화 핀다>(주태익 작), <하얀길>(심영식 작), <꽃다 이 살자>(양근승 작), <구름을 잡는 女人>(이진섭 작)
1970	<미스터 코리아>(김석야 작), <茶 한잔 때문에>(남지연 작), <그때 그 사람>(박신민 작), <지각한 新婦>(추식 작), <中流社會>(정진건 작), <가난한 女人>(백전교 작), <하얀 얼굴>(전창식 작), <이 세상 끝까지>(심영식 작), <아버지>(박신호 작), <목마는 사슴>(이석인 작), <만사위>(최풍 작), <삼다리총각>(추식 작)
1971	<하나 둘 셋>(최요안 작), <11너머>(남지연 작), <天使의 미소>(양근승 작), <여사공>(이용찬 작), <女子가 가는 길>(정진건 작), <차거운 그림자>(전창식 작), <가을 夫人>(오재호 작), <노다지 人生>(김석야 작), <일용네>(차범석 작)
1972	<천리장성>(조훈파 작), <젊은 나그네>(이용찬 작), <가슴에 흐르는 江>(정진건 작), <돌아오지 않는 江>(배명숙 작), <사랑의 姊妹>(최풍 작), <말메골 사연>(주태익 작), <아가 손자가 늙다>(추식 작), <순녀>(신명순 작), <당나무골 사람들>(백전교 작), <새 마을 아가씨>(박조열 작)
1973	<물망초>(정진건 작), <공선생>(양근승 작), <장타>(추식 작), <뽕 따는 아가씨>(박서림 작), <춤추는 假面>(김홍 작), <머슴대감>(김중희 작)
1974	<청자빛은 왜 푸른가?>(한유림 작), <女子손님>(배명숙 작), <미오는 밤의 여름>(유익선 작), <逆境에 피는 꽃>(임정남 작, 이철주 각색), <바람부는 시절>(주태익 작), <푸른 處女>(이인석 작), <담배꽃 필 무렵>(정진건 작)

[표 8] 《KBS 연속극》(1961~1973)의 주요 연속극

연도	작품명 및 작가
1961	<역세계 채수 좋은 사나이>(김희창 작)
1962	<安市城의 꽃송이>(김영근 작), <꽃바람 봄바람>(이서규, 이석정, 민구, 최요안, 박영만, 이진섭, 주태익, 김영수 작), <아낌없이 주린다>(한운사 작), <申開殿>(이서규 작), <당신 방죽의 물이 넘친다>(주태익 작), <뽕꽃새가 된 處女들>(최요안 작), <불선화 피고 질때>(박영만 작), <탈을 쓰는 사나이>(이보라 작), <달의 勳章>(김석야

	작), <옛날의 금잔디>(조남사 작)
1964	<고운님>(이석정 작), <바보와 천치>(김광섭 작), <영화마미>(장덕조 작), <꽃맞이 放送劇 選集>(정진건, 정우영, 김광섭, 이인석 작), <麻浦사는 황부자>(추식 작), <용비어천가>(김영근 작), <여장부>(이영신 작), <나뭇타>(최호수작), <4등席 人生>(최요안 작), <鵬鰲江아 말하라>(서윤성 작), <가로수의 합창>(조남사 작)
1965	<靑山別曲>(이서구 작), <남산골 샌님>(이석정 작), <思美人曲>(이영신 작), <이브의戀歌>(이용찬 작), <海軍>(한운사 작), <모래 위에 새긴 사랑>(최요안 작)
1967	<갑산 아바이>(김중희 작)
1968	<삼현육각>(김영근 작), <복사꽃이 피면>(최풍 작), <기도하는 도미니카>(김항명 작), <山河여 말하라>(서윤성 작), <북소리>(신일석 작), <초록구름>(김진욱 작), <대한민국 20년>(윤혁민 작), <따이한>(김석야 작), <난 바다가 미워>(조남사 작), <아내여 미안하다>(정진건 작), <고생도 달가워>(최요안 작)
1969	<딸 3兄弟>(김영수 작), <開花바람>(이서구 작), <天使의 유희>(최호영 작), <마음의 날개>(박서림 작), <永土>(박우보 작), <해는 지지 않는다>(조남사 작), <꽃과 바람>(이인석 작), <北太平洋>(김홍 작), <면 사람>(윤혁민 작), <가야산의 범종소리>(이석정 작), <아빠 선생님>(정승아 작), <외롭지 않은理由>(이기명 작)
1970	<南宮童子>(최요안 작), <열어라 門>(최호영 작), <뒤안길에 잠미가>(주태익 작), <정수동>(조훈파 작), <英親王>(이서구 작), <뽕이>(고영훈 작), <수다스런 季節>(오재호 작), <아스팔트>(박성화 작), <驛長님>(양근승 작), <따스한 겨울>(이기명 작), <봄은 오는데>(정승아 작)
1971	<말머느리>(이서구 작), <오동나무집 3代>(이경재 작), <역척이 吳書房>(추식 작), <그림자의 북소리>(심영식 작), <칠보단장>(이석정 작), <내마음을 아시라>(박서림 작), <아벨의 반항>(이수화 작), <待合室의 들국화>(최호영 작)
1972	<검은 十字架>(박우보 작), <내 故郷>(이철주 작), <南山마담>(김영근 작), <문간방 사나이>(신태승 작), <흙>(최일수 작)
1973	<청산거사>(윤혁민 작), <家族會議>(김하림 작), <장터>(추식 작), <뽕 따는 아가씨>(박서림 작), <춤추는 假面>(김희창 작), <머슴대감>(김중희 작), <카인의 후예>(황순원 작, 차범석 극본), <無影塔>(현진건 작, 이석정 극본), <黑山島>(전광용 작, 박만규 극본), <아름다운 誤解>(김광식 작, 심영식 극본), <가을에 온 女人>(박경리 작, 하유상 극본)
1974	<山脈>(김희창 작)
1975	<玉丹春>(최요안 작)

[표 7]과 [표 8]에 제시된 드라마의 특징적인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면 먼저 현상공모작으로 방송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라디오 극장》에서는 송숙영 작 <몸부림 치던 都市>(1962년도 신춘극 장려상), 이호원 작 <잃어버린 여름>(1967년 신춘극 당선작), 박신호 작 <鐵道員>(1968년 신춘극 입선작), 이기명 작 <平和스런 날의 작별>(1968년 추계 현상공모 당선작), 정진건 작 <가슴에 흐르는 江>(1972년 신인작품 당선작), 한유림 작 <청자빛은 왜 푸른가?>(1973년 신춘문에 입선작), 배명숙 작 <女子손님>(1974년 신춘문에 입선작), 유익선 작 <비오는 밤의 여름>(1974년 신춘문에 입선작) 등을 들 수 있으며, 《KBS 연속극》의 경우 현상 공모작으로 방송된

작품은 김광섭 작 <바보와 천치>(1964년 신춘극 당선작), 김항명 작 <기도하는 도미니카>(1968년 현상극 당선작), 정승아 작 <아빠 선생님>(1969년 신인공모 당선작), 고영훈 작 <뽕아>(1970년 신인공모 입선작), 박성화 작 <아스팔트>(1970년 신인공모 입선작), 이수화 작 <아벨의 반항>(1971년 신인공모 당선작) 등이다. 신인 등용과 소재 발굴의 장으로서 시행된 현상공모작은 연속극 시간대에 위치하여 청취자들에게 방송된 것이다.

또한 1964년도 <신춘 연속방송극>(《라디오 극장》)과 1962년 <꽃바람 봄바람>(《KBS 연속극》)은 일종의 릴레이 연속극으로 전자는 이서구, 김영수, 이호원, 주태익, 박우보, 백전교, 민구, 최요안 등이 엮어갔으며, 후자는 이서구, 이석정, 민구, 최요안, 박영만, 이진섭, 주태익, 김영수 등이 릴레이로 집필한 것으로 '3·1절 릴레이 방송극'이었다.

한편 《KBS 연속극》에서 1964년도 <꽃맞이 放送劇 選集>은 정진건, 정우영, 김광섭, 이인석 등의 작품을 선편한 것이다. 그리고 1968년도 <따이한>은 김석야 작품으로 '월남전 취재극'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1973년 4~10월 같은 시간대에서 '문예극장'이라는 타이틀로 <흙>(이광수 작, 최일수 극본), <카인의 후예>(황순원 작, 차범석 극본), <無影塔>(현진건 작, 이석정 극본), <黑山島>(전광용 작, 박만규 극본), <아름다운 誤解>(김광식 작, 심영식 극본), <가을에 온 女人>(박경리 작, 하유상 극본) 등 문예물을 방송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런데 1974년도 《라디오 극장》에서는 '새마을 운동'을 주제화한 내용으로 임정남 작, 이철주 각색 <逆境에 피는 꽃>(문화공보부 새마을수기 현상공모 최우수작)과 주태익 작 <바람부는 시절>, 이인석 작 <푸른 處女>, 정진건 작 <담배꽃 필 무렵> 등을 방송하였는데, 일종의 계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표 7]에서도 드러나지만 《라디오 극장》은 전반적으로 작품의 소재 선택에 제한을 두지 않고 현대극(주로 멜로드라마)을 폭넓게 다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그 주제가 다소 달라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KBS 연속극》도 1975년 2월부터는 《라디오 극장》과 함께 목적극

(반공) 위주로 방송하도록 프로그램 성격이 고정되었다.²¹⁾ 이는 사회적인 상황과 관련되는데, 1973년 초부터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적극 전개됨에 따라 새마을 운동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방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군다나 1975년 2월부터는 새마을정신 홍보만을 주제로 하도록 방침이 정해졌다.²²⁾

한편 CBS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예 프로그램의 새로운 포맷을 시도했다. 이에 임희재 극본, 민구 연출 <파란 라이트를 켜라>를 출발점으로 임옥인 작, 홍석진 연출의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송태주 작, 민구 연출의 애정극 <무화과>가 방송되었는데, 특히 <무화과>(1960.9.1~30)는 CBS 일일연속극의 시초가 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조남사 작·연출의 애정극 <밤에만 흐르는 江>이 방송되었고, 이어 이서구 작, 민구 연출의 시대극 <天下泰平> 등이 방송되어 그 내용과 형식에서 다양성을 보였다.²³⁾ 1960~1970년대 CBS의 주요 연속극을 목록화하면 다음 [표 9]와

[표 9] CBS(1960~1975)의 주요 연속극

연도	제목 및 작가·연출가
1960	<파란 라이트를 켜라>(임희재 작/민구 연출 -1960.2.7-6.19),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임옥인 원작 김영수 각색/홍석진 연출 -1960.3.28-8.15), <밤에만 흐르는 江>(조남사 작/홍석진 연출-1960.10.2-1961.2.13), <무화과>(송태주 작/민구 연출 -1960.9.1-9.30), <天下泰平>(이서구 작/민구 연출 -1960.11.28-12.19)
1961	<망부석>(이서구 작/홍석진 연출 -1961.6.3-7.8)
1965	<신부만세>(박우보 작/민구 연출 -1965.2.3-2.29)
1966	<마틴 루터>(홍석진 연출 -1966.6.1-1969.7.23)
1966	<검은 회오리 바람>(이경재 작/히지영 연출 -1966.8.5-9.8)
1969	<한국기독교 백년사>(박완 작/곽현 연출 -1969.7.26-1971.2.27)
1970	<장군 명군>(박서림 작/임영웅 송영 연출 -1970.4.1), <백범 金九>(주태의 작/홍석진 연출 -1970.10.3-1972.3.30)
1971	<명시의 고향>(이수화, 구석봉, 이인석 작/송영 연출 -1971.10.11-1974.9.26), <막차타고 가는 길>(이용찬 작/백전교 연출 -1971.2), <4월의 연가>(김수현 작/송영 연출 -1971.3), <서울은 내것이다>(최호수 작/심영식 연출 -1971.4), <모자를 쓰고>(이보라 작·연출 -1971.7), <이풍진 세상>(박우보 작/송영 연출 -1971.3.1-10.31), <빛을 찾는

21)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422면.

22)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419면.

	사람들>(주태의 작/송영 연출 -1971.10.11-1976)
1972	<신념에 산 유일환>(오재호 작/히지영 연출 -1972.2.4), <군학도>(유주연 작/박용기 연출 -1972.2.4), <꽃바람>(차범석 작/박용기 연출 -1972.2.4), <남북 4반세기>(주영신 최홍 작/이광천 연출-1972.4.1-1973.10.30), <그리운 아빠>(이성재 작/박용기 연출 -1972.11.-12),
1973	<산천에 산다>(오재호 작/박용기 연출), <대한제국>(유주현 작/정한용 연출 -1973.6.4-12.31), <포도대장>(오재호, 서윤선, 최호수, 이인석 작/박용기 연출 -1973.7.9-12.30)
1974	<사랑하는 마음>(이월경 작/박용기 연출 -1974.1), <우리집이 최고야>(최호수, 박이엽 작/송문정 연출 -1974.6.10-1975.3.29), <하얀 세월>(이상신 작/이광천 연출 -1974.6.10-8.8), <갈매기의 고향>(이항명 작/이광천 연출 -1974.8.9-10.5), <고독한 들꽃>(백도기 원작, 구석봉 각색/이광천 연출 -1974.10.7-12.31), <여기 한길에 있다>(김항면 작/이광천 연출 -1974.10.7-1975.9.30)
1975	<마보 꽃레>(주태의 작/오재호 연출 -1975.1.1-2.28), <진달래가 필때는>(주태의 작/이광천 연출 -1975.3.1-4.30), <고백>(김항명 작/이광천 연출 -1975.5.1-6.30), <지영아>(최호수 작/이광천 연출 -1975.7.1-1975.9.30), <지금은 어디에>(신명순 작/이광천 연출 -1975.1.-11.30), <당신>(양근승 작/이광천 연출 -1975.12.1-1976.1.31), <한국인>(구석봉 작/이광천 연출 -1975.10.1-1976.1.31), <잃어버린 눈동자>(양근승 작/이광천 연출 -1976.2.2-3.31), <내 마음 가는 곳>(이용찬 작/송문정 연출 -1976.4-5.29), <그대들의 황야>(이수화 작/송문정 연출 -1976.5.31-7.31), <신이어 강이어>(이재우 작/송문정 연출 -1976.8.2-10.2)

같다.²⁴⁾

또한 1961년 12월에 개국한 MBC는 개국 초기에 김희창 작 <웃기지 말아라>라는 주간연속극과 조남사 작 <하늘과 땅 사이> 등의 일일연속극으로 방송극을 시작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드라마를 방송했는데, 1961~63년도 MBC 연속극을 테마별로 보면 《연속방송극》, 《연속무대》, 《주말연속극》 등이 방송되었고, 특히 1965년도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연속방송극에 비중을 두었다. 기존의 방송극에 《청소년극장》(6시대), 《7시 연속극》, 《8시 연속극》, 《9시 연속극》, 《10시 연속극》 등 시간대마다 연속을 편성한 것이다. MBC 방송극 중 전과를 탔던 주요작을 제시해 보면 [표 10]과 같다.²⁵⁾

23)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769면.

24) [표 9]는 『韓國放送史』(1977), 829면 참조.

25) [표 10]은 『韓國放送史』(1977) 867~868면과 『文化放送社史』(1982) 부록을 참조.

[표 10] MBC의 주요 연속극(1961~1975)

연도	제목 및 작가연출가/방송일자
1961	<仁穆大妃>(이서구 작·연출 -1961.1.22-1962.2.24), <惡人은 없다>(민구 작·연출 -1961.5.21-1962.6.30), <하늘과 땅 사이>(조남사 작/이보라 연출 -1961.12.2-1962.2.24)
1962	<빨간 마후라>(한운사 작/심영식 연출 -1962.10.15-1962.11.24)
1963	<푸른 물은 江마다>(김중희 작/장문수 연출 -1963.6.1-1963.6.30), <검은 불연속성>(이경재 작/박동근 연출 -1963.9.3-1963.10.13)
1964	<金素月放浪記>(1964.1.1-1964.1.11), <진고개 紳士>(심영식 작/조남사 연출 -1964.2.10-1964.3.21), <남이장군>(김영곤 작/오사랑 연출 -1964.3.23-1964.4.25), <절망은 없다>(1964.4 김중희 작, 박수복 연출(1964.6, 정진건 작/오학영 작, 남궁용문 연출/이재우 작, 최원 연출/구석봉 작, 김지현 연출/박수복 작, 김진희 연출/박서림 작, 고무송 연출), <月給봉투>(박서림 작/오사랑 연출 -1964.7.1-1964.7.31)
1965	<딸부자집>(추식 작/김철 연출 -1965.5.17-1965.6, 최호수 작/김포천 연출 -1965.6-1965.7, 김광섭 작/김포천 연출 -1965.8.7-1965.9.4, 이관석 작/김포천 연출 -1965.9.6-1965.10.9, 백전교 작/김포천 연출 -1965.10.11-1965.12.18, 김소영 작/김포천 연출 -1965.11.15-1965.12.18, 양근승 작/김포천 연출 -1965.12.20-1966.1.22), <행복의 계단>(이성재 작/백민 연출 -1965.7.19-1965.9.4), <심술閣下>(이봉승 작/김지현 연출), <엄처사하>(김석야 작/김지현 연출 -1965.9.27-1965.10.30)
1966	<宅의 婦人은 어머십니까>(정진건 작/김포천 연출 -1966.7.1-1966.7.31), <太陽은 내것이다>(추 작/백민 연출 -1966.1.3-1966.2.5), <李進士宅 며느리>(이석청 작/허지영 연출 -1966.12.4-1966.12.31), <엄마야 누나야>(심영식 작/민상근 연출 -1966.10.2-1966.10.31), <甕道>(신명순 작/임영웅 연출 -1966.11.13-1966.12.30),
1968	<順德이>(이재우 작/임영웅 연출 -1968.1.1-1968.1.31), <갈대>(양근승 작/김포천 연출 1968.2.5-1968.3.9), <永花>(차범석 작/오사랑 연출 -1968.1.1-1968.2.17), <野生馬>(김기팔 작/민상근 연출 1968.10.21-1968.11.23),
1969	<저 눈발에 사슴이>(김수현 작/백전교 연출 -1969.1.1-1969.2.4), <돌고래>(윤청각 작/유신희 연출 -1969.9.6- 1069.10.18)
1970	<어머니>(추식 작/심영식 연출 -1970.2.16-1970.3.31), <사슴이 풀릴 때>(박정란 작/김지현 연출 -1970.6.15-1970.7.19), <하얀 호텔>(권오욱 작/김포천 연출 -1970.1.1-1970.1.30), <싸늘한 太陽>(박수복 작/심영식 연출 -1970.4.1-1970.4.30), <喪妃>(김영곤 작/민상근 연출 -1970.12.1-1971.5.1), <여간첩 金壽任>(이삼녕 작/고무송 연출 -1970.12.1-1971.1.31)
1971	<그림자 없는 사나이>(이인석 작/민상근 연출 -1971.8.1-1971.8.31) <미혼시절>(남지연 작/민상근 연출 -1971.7.1-1971.7.31)
1972	<길 잃은 사슴>(최호수 작/민상근 연출 -1972.1.1-1972.2.13), <흙순이>(이재우 작/고무송 연출 -1972.8.1-1972.9.30)
1973	<매비장전>(유현중 작/고무송 연출 -1973.10.1-1973.10.31)
1974	<외아들>(김항명 작/김진희 연출 -1974.10.1-1973.12.31), <남은정 기쁜정>(최풍 작/고무송 연출 -1974.2.9-1974.3.31), <土地>(박경리 원작, 구석봉 작/김홍배 연출 -1974.10.1-1974.9.30), <양반전>(유현중 작/고무송 연출 -1974.2.1-1974.3.31)
1975	<約束>(이호 작/황기찬 연출 -1975.1.1-1975.3.31), <며느리의 조건>(김항명 작/김진희 연출 -1975.1.5-1975.3.30)

DBS는 방송 초기부터 기존의 멜로드라마 위주의 방송극을 지양한 방송극으로서 주목된다. 그 한 예로서 《奇正洙 시리즈》(PD 안평선, 윤활식)는 ‘한국판 007’ 시리즈로 불리운 스릴러 액션물이다. ‘奇正洙’는 제임스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인공으로서 당시 《007 시리즈》가 한국에 상륙하여 그 붐을 이루고 있던 때, 청취자의 호응 속에서 방송되었다.²⁶⁾ 1966년 4월 25일부터 방송된 이 드라마는 밤 9시 20분부터 15분간 방송되었다. 이 시간대 타 방송사의 드라마는 일색 멜로드라마였는데, 《奇正洙 시리즈》가 역편성됨으로써 드라마의 새로운 영역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 1963년 개국기에 DBS의 연속극에도 멜로드라마로서 <새엄마>, <5월의 꿈>, <동백아가씨>, <오늘과 내일>, <오늘도 푸른 하늘>, <아빠 안녕> 등이 방송되었다.

한편 TBC는 앞서 드라마 경쟁에서 밝혔듯이 1987년 8월 연속극 편성 시간대를 8시 20분대와 9시 20분대로 옮기면서 청취율이 높아졌다. 개편 후 특히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로는 8시 20분대의 <윤심덕>(조훈파 작, 김태주 연출), <갈망>(조남사 작, 김태주 연출), <불장난>(조남사 작, 김태주 연출), <구슬공주>(김영곤 작, 김태주 연출) 등과 <日本人>(조남사 작), <韓國人>(아마다·다카유키 작)을 들 수 있다. 특히 <日本人>과 <韓國人>은 1967년에 기획되어 1968년도에 방송된 드라마로 한일 중견작가의 작품 교환으로 관심을 끌었던 방송극이다. 이 작품은 해방기라는 전환기에 한국에서 태어난 ‘유리꼬’라는 소녀의 기구한 삶을 주제로 한 것으로, 한·일간의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한·일 양국 방송작가들이 공동으로 작품을 만든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회 20분, 90회 분량으로 먼저 우리나라 작가 조남사가 45회분(1968.1.31~3.6 방송)을 <日本人>이라는 제목으로 집필하였고 나머지 45회분은 일본인 방송작가 아마다·다카유키(산전릉지)가 <韓國人>(1968.3.17~4.30 방송)이라는 제목으로 이어갔다. 당시 이러한 시도는 40년 한국방송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방송극으로서 국제적 교류라는 데 그 의의가 컸다.²⁷⁾

26) 東亞日報社, 앞의 책, 229면.

27)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스크린’에서도 한·일 협력 영화들이 제작되기도 했다. 우선 첫 시도로 <고안>(동경요정)이 일본 ‘도에이’의 제작 협력을 얻어 1966년 1월 동경

9시 20분대는 <상감마마 미워요>(임희재 작, 정인섭 연출), <단발기생>(임희재 작, 박현 연출), <로맨스 빠빠>(임희재 작, 유신호 연출) 등 역량있는 작가와 연출가의 작품들이었고, 감각적인 새로운 형식의 개발로 인기를 얻은 드라마들이었다.²⁸⁾

특히 TBC의 재편성 이후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목록을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²⁹⁾

[표 11] TBC의 재편성 이후 주요 연속극

시간대	작품명 및 작가/PD
7시 20분(20분간)	<두견새 우는 사연>(임희재 작/PD 정인섭), <신은 10개월>(임희재 작/PD 허식), <언덕 위의 하얀집>(조남사/PD 정영식), <능금이 먹어갈 때면>(임희재 작/PD 김태주)
8시 20분(20분간)	<윤심작>(조훈파 작/김태주 연출), <갈망>(조남사 작/김태주 연출), <불장난>(조남사 작/김태주 연출), <구슬공주>(김영곤 작/김태주 연출), <변호를 단 고양이>(추식 작/PD 정인섭), <귀머무인>(이재우 작/PD 유근필), <韓國人>(山田陵之 작/PD 김태주), <日本人>(조남사 작/PD 김태주)
9시 20분(20분간)	<가슴을 펴라>(한운사 작/PD 정인섭), <상감마마 미워요>(임희재 작/PD 정인섭), <怪電話>(전창식 작/PD 정인섭), <달래>(김자립 작/PD 허식), <단발기생>(임희재 작/박현 연출), <로맨스 빠빠>(임희재 작/유신호 연출)
토·일 주말(30분간)	<이 원수야>(유호 작), <미바리 서울에 오다>(오영진 작), <스카이라운지의 姜社長>(차범석 작)

3.1.2. 연속극의 멜로드라마 전성기

위에서 KBS, CBS, MBC, DBS, TBC 등의 연속극 방송 현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보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에 라디오 드라마가 상당수 방송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연속방송극은 방송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단연 톱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꾸준히 인기 상승의 길을 밟았다.

에서 ‘크랭크·인’ 했고, 한운사 원작의 연속방송극 <동경나그네>를 영화화한 ‘한·일협력영화’가 시도되기도 했다(『첫 한일협력영화 작품명 <고안>』, 『중앙일보』, 1966.11.5)

28) 東亞日報社, 앞의 책, 210면.

29) [표 11]은 『韓國放送史』(1977), 820~824면 참조.

그런데 드라마명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DBS 등의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멜로드라마물에 속하는 드라마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참고로 당대 KA의 ‘방송문화연구실’에서 행한 ‘제2회 서울 지구청취자 여론조사결과’(1961년 4월 조사)³⁰⁾를 통해 당시 청취 경향을 살펴 볼 수 있다. 설문 내용 중 어떤 종류의 방송을 더 듣고 싶어하느냐의 질문에 대하여 뉴스(13.8%), 교양·사회(8.3%), 음악(24.9%), 방송극(27.4%), 오락(14.0%), 운동(1.9%), 주부(6.2%), 어린이(1.8%), 미상(1.7%)의 반응으로 방송극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또한 여기에서 ‘어떤 장르의 방송극을 즐겨 듣는가’라는 설문 결과 애정극(멜로드라마)과 역사극의 청취율이 높았다.³¹⁾ 한편 『매일 연속극 그 저질 원인과 개선책』(『중앙일보』, 1973.7.17)에서도 당시 일일연속극의 경우 TBC·KBS·MBC·DBS·CBS의 라디오 드라마가 25편이나 방송되고 있었는데, 이들 드라마를 성격별로 분류하면 멜로드라마 40%, 시대극·사극 31% 등으로 라디오 드라마는 멜로물과 역사물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보다시피 멜로물은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였다. 앞서 [표 7]~[표 11]에 제시된 목록에서도, 예외적인 몇 경우를 제외하면 멜로 드라마의 비중이 지배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連續 ‘드라마’로 電波를 탔던 <아빠 安寧>의 映畫化가 즐기찬 눈물 공세로 三十萬餘名의 관객을 동원하여 그 興行이 크게 ‘히트’하자 우리나라 연속放送劇은 어떤 자극(?)을 받았음인지 바야흐로 ‘멜로드라마’ 全盛時代를 이루고 있다. 여기를 틀어도 한숨 섞인 通俗調, 저기에다 ‘다이얼’

30) 『제2회 서울지구청취자 여론조사결과』(上), 『조선일보』, 1961.5.28.

31) 이 외에도 공보부의 여론조사 결과(『조선일보』, 1963.8.25), 서울선 동양방송이 최고(『중앙일보』, 1966.9.6), 『무엇을 보고 어떻게 듣나』(『중앙일보』, 1969.1.1), 『오락에서 교양으로 방송인 세미나 네 주제』(『중앙일보』, 1967.4.15), 『서울시민 청취·시청 실태조사』(『중앙일보』, 1970.3.27) 등과 그 외 다수의 리서치에서도 유사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을 돌려도 糖衣錠新派劇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나오는 형편... 二十회 건 三十회건 매일 한회씩 연속 '드라마'의 電波를 탔던 放送劇이란 放送劇은 百이면 百 모두가 무슨 不文律이나 지키듯 반드시 映畫化되는 韓國的인 실정이고 보면 그러한 傾向을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같은 '멜로드라마'라고 할지라도 담고 있는 내용이나 素材가 모두 千篇一律적이고 單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安易한 줄거리의 全開에 있는 것이다.

「멜로드라마의 洪水 (『조선일보』, 1964.2.9)

(5)의 앞선 내용을 보면 당시 일본 TV 드라마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눈물', '피'(살인이나 상해), '섹스 핑크무드' 등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일본에 한한 것이 아닌 한국 드라마에서도 통용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는데, 특히 '눈물'은 한국 드라마(라디오)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소로서 눈물의 주인공은 바로 '홍루적 대중(紅淚의 大衆)'을 사로잡는 멜로드라마의 주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글에서 당시 방송되고 있는 각국(各局)의 연속 '드라마'를 진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괄 정리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6) 등장인물은 가난하고 아름답고 逆境 속에 선 가냘픈 女主人公, 이 女人을 둘러싼 사나이들! 뚱뚱한 富者社長, 快活한 美男青年, 奸惡한 謀士 등등이 있고, 男主人公을 짝사랑하는 교만한 令嬢(이 아가씨는 必然的으로 '히로인'을 괴롭히는 役割이다) 등. 안타까운 엇갈림과 알곶은 誤解, 가난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과 설움을 몇 차례 겪고 事故로 病院 장면도 나타나노라면 이윽고 靑春男女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대개 通俗 '멜로드라마'의 뼈대귀인 것이다.

「멜로드라마의 洪水 (『조선일보』, 1964.2.9)

인용문에서 보인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연속극이 울음과 눈물의 연

속이며, 우연과 기회의 사건이 남발하고, 삼각 사각의 남녀관계는 기본이며, 사장은 어느 드라마에서나 등장하고, 한결같이 미녀인 여주인공은 대부분 흥등가나 '차방(茶房)의 '카운터'가 직업이며, 남녀간의 오해를 조장하기 위한 모략과 흥계, 불운의 사고 등이 태반이었다. 이 글에서는 당시 방송되고 있던 KJ의 <떠날 때는 말없이>(서운성 작), <明洞 아줌마>(김석야 작), KA의 <사랑의 뒤안길>(이인석 작), KY의 <新婦萬歲>(박우보 작), KV의 <빛나간 靑春>(이용찬 작)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인용문에서 제시한 멜로드라마의 도식성, 감상성, 우연성이라는 속성은 그 어느 드라마에서건 한 자락이라도 빛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각 방송사의 드라마의 경우도 그 수가 많아 일일이 분석할 지면을 할애하지 못하였으나 (6)에서 지적한 바의 멜로드라마적 속성을 대부분 지니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연구원 팀이 연구·발표한 내용을 게재하고 있는 「방송내용의 분석」(『중앙일보』, 1972.6.26)에서도 조사 대상인 멜로드라마 6편 가운데 대부분이 남녀의 사랑 문제가 주조를 이루고 있으며 불륜의 사랑이 5편, 요행에 의한 주인공의 벼락출세가 2편을 차지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작품에 나타난 가정 24개 중 15개가 상류사회를 그린 것으로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의식을 외면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참석자들은 윤리관과 가치관의 부재, 흥미 본위의 저속성과 소재의 빈곤 등을 문제시하였고, 청취율에 얽매이는 스폰서와 그에 따른 방송국의 부정적인 운영실태를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드라마의 내용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우선 우수한 극작가를 양성하고 수준 높은 PD·연출자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멜로드라마 붐은 1950년대의 연속 방송사극 붐에 이어 전성을 자랑하였다. 이를 보면 당대 대중에게 어필된 라디오 드라마는 외관을 달리한 일종의 신과성 드라마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다수의 멜

로드라마의 청취자가 여성이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위의 '제2회 서울지구청취자 여론조사결과(下)(1961년 4월 조사)'³²⁾에서 가족 중에서 '누가 라디오 드라마를 가장 많이 듣는 편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조부·조모(3.4%), 아버지(21.3%), 어머니(33.0%), 아들(20.2%), 딸(14.1%), 기타(6.4%), 미상(1.6%)의 분포도를 보였다. 보다시피 어머니 다시 말해서 '주부'가 제일 급 애청자였다. 그 외에도 「이렇게 보고 듣는다」(『중앙일보』, 1966.9.22) 「읽는 사람·듣는 사람」(『중앙일보』, 1968.1.4), 「주부 상대하면 청취율이 높다」(『중앙일보』, 1978.1.1) 등 저널의 조사에서도 라디오 드라마 청취율에서 주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보면 당시 멜로드라마는 여성, 특히 주부에게 어필될 수 있는 장르였음을 알 수 있는데, 각 방송사마다 이들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5)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된 바, 이러한 멜로드라마로의 편중 현상은 당시 라디오 드라마의 영화화 현상과도 연관이 깊다. 라디오 드라마는 인기리에 방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방 후 영화화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1950년도 말부터 일고 있었다. 1957년부터 1959년까지 3년간 방송된 연속극은 거의 영화화되어 방송가와 영화가의 화제가 되었다. 조남사 작 <산 넘어 바다 건너>로부터 시작하여 3년 동안 20회 내지 30회씩의 중편 연속극이 계속 등장하여 압도적인 청취율을 보였고, 그 중 인기있는 드라마는 대부분 영화화되었다. 이러한 방송극의 영화화 현상은 한국 영화가 꽃을 피우던 1960년대에 들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결과적으로 방송극의 멜로드라마화를 촉진했고 더불어 역사극의 궁중비화나 애사 중심의, 대중의 흥미와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했다.³³⁾

한편 영화화 현상과 함께 방송극이 인기를 얻으면 그 주제가도 유행하고 책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잦고³⁴⁾ 혹은 '레코드 드라마'로 만들어지는

32) 「제2회 서울지구청취자 여론조사결과(下)」, 『조선일보』, 1961.5.29.

33)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421면.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레코드화한 드라마와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7) 「마이크 를 통하여 全國的으로 널리 알려진 史劇 <大春香傳>, <大沈淸傳> 그리고 <張禧嬪>이 蓄音機에 收錄되어 어디서나 마음대로 듣고싶은 場面을 되풀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레코드·드라마 라고 불리는 이 史劇의 즐거리를 音樂을 섞어 LP에 錄音하여 한 時間 동안에 들을 수 있게 縮小한 것이다. 現役 聲優와 名唱 그리고 歌手들이 呼吸한 이 「레코드·드라마 는 農漁村民들에게 娛樂를 提供하기 위하여 新世紀 레코드社에서 한 것이다.

「레코드·드라마 出現」(『동아일보』, 1962.1.26)

(7)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레코드 드라마'란 방송극의 즐거리에 음악을 삽입하여 LP에 녹음한 것으로, 한 시간 동안 들을 수 있게 축소한 것이다. 인용문에서 <春香傳>과 <沈淸傳>을 사극이라 칭한 것은 따로이 논의될 부분이지만, 이들 드라마와 함께 1960년대 방송 당시 청취율을 높였던 <張禧嬪> 등이 '레코드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레코드화한 드라마의 장르가 다름 아닌 사극이라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3] 조남사 작 <밤에만 흐르는 강> 영화 포스터 (『조선일보』, 1961.4.1)

34) 일례로 KA에서 1961년도 1월 23일부터 일일연속극으로 <張禧嬪>이 방송됐는데 역사적 실제 인물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청취자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켜 3월 4일 전 36회로 끝날 때까지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주제가의 유행과 함께 종방 이후 책으로 발간되기도 했다. 특히 1961년에 인기리에 방송된 드라마인 한운사 작, 문수경 연출 <玄海灘은 알고 있다>는 일제하 한국판 '인간의 조건'을 상기시키는 드라마로서 매주 일요일 밤 KA 제1방송에서 9시 30분에 방송되었는데, 이 작품도 '팬'의 관심을 모아 청취율이 높았고 그와 함께 주제가도 유행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종방 이후 소설로 재탄생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소설이 방송극화 하는 경우가 아닌 라디오 드라마가 소설화됨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극은 1950년대에 봄을 이룬 장르이기도 한데, 라디오 드라마 중 사극만을 레코드화했다는 사실에서 당시 멜로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사극의 인기도가 여전히 높았음을 확인하게 된다.

3.2. 예술성 지향의 단막극

3.2.1. 각 방송사의 단막극 방송 현황

단막극은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가 일회로서 완결되는 이야기를 뜻한다. KBS에서 단막극의 대표로서 손꼽히는 것은 《KBS 무대》이다. 순수 단막극으로 1954년에 편성되어 1975년도 당시까지 2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드라마이며 민영방송에서도 설립 당초에 이를 본받아 유사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했다. 《KBS 무대》는 주로 창작극을 다루었지만 1968년과 1972년에는 국내의 작품들을 각색해서 내보내기도 했으며, 1972년도부터는 <새마을 작품 시리즈>를 방송하기도 했다. 새마을 작품의 경우는 순수 방송극 예술을 지향하는 《KBS 무대》 본래의 정신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³⁵⁾ 1970년대 초의 사회적 상황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기도 하다. 참고로 그 주요작을 제시해 보면 [표 12]와 같다.³⁶⁾

[표 12] 《KBS 舞臺》(1958~1975)의 주요 단막극

연도	제목 및 작가
1958	<눈 오는 밤>(김영수 작), <어떤 運命論者>(주태익 작), <소슬한 바람>(김희창 작), <落葉>(조남사 작),
1959	<종달새의 季節>(주태익 작), <깊은 산속에서는>(김희창 작), <푸른 장미>(이상훈 작), <장명등>(이서구 작), <낙엽>(조남사 작), <삿갓마을 이발관>(이보라 작), <머나 먼 어느 곳에서는>(임희재 작), <귀향>(차범석 작), <後記印象派의 밤>(김희창 작)
1960	<파리藥에 붙은 파리>(김희창 작), <黃昏>(임희재 작), <그리움>(이서구 작), <조용한 분노>(한운사 작)
1961	<背反당한 사람끼리>(차범석 작), <조그만 動機>(민구 작), <再會>(심영식 작), <太陽은 내일도>(조남사 작), <예레자>(이서구 작), <왜가리집 老人>(정진건 작), <밤나무 숲에서>(김영수 작), <誤解>(김경옥 작), <미쳐난 解放>(김희창 작), <幸運>(하유상

35)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421~423면.

36) [표 12], [표 13]은 『韓國放送史』(1990), 421~423면 참조.

	작), <오늘밤에도 달이 뜬다>(이경재 작), <행복은 그들에게>(김자림 작), <寶物怪物>(주태익 작), <파란燈 빨간燈>(이희복 작), <마을의 悲歌>(서항석 작), <孤獨의 하모니카>(백전교 작), <計算書>(박서림 작)
1962	<밤에 온 사람>(김영수 작), <秘密>(주태익 작), <물개바람>(김자림 작), <새벽길>(이서구 작), <외로운 사람들>(김포천 작), <寶金이의 노래>(김희창 작), <대나무>(이인석 시극), <處女>(신명순 작), <두 사나이>(박우보 작), <아들 돌아오다>(한운사 작), <漁夫>(백전교 작), <행갈의 동굴>(이숙영 작)
1964	<먼동이 뜨기 前에>(하유상 작), <색사>(김진옥 작), <보슬비처럼 외로운 夫婦>(주태익 작), <역류>(이희복 작), <멀지 않은 항구>(전봉건 작), <항수>(조대현 작), <移民船>(이경재 작), <말없는 詩>(최요안 작), <오솔길>(김원태 작), <비 오는 밤에>(이호원 작), <少年>(이기명 작), <포수>(김중희 작), <歲月의 여운 속에서>(신일석 작), <길은 멀어도>(박영만 작), <人形>(백전교 작), <인과응보>(이영진 작), <天使 서울에 나리다>(정진건 작), <빨간 달걀>(송숙영 작), <어떤 고독>(김진옥 작)
1965	<저녁노을>(김영수 작), <눈보라>(이석정 작), <광야>(김기팔 작), <봄이 오는 소리>(김광섭 작), <G線上的 아리아>(윤혁민 작), <괴종>(박서림 작), <수렁>(김홍 작), <산삼 얘기>(이석정 작), <꿈꾸는 나비>(차범석 작), <이른 봄 나비의 죽음>(최요안 작), <외로운 고집>(김포천 작)
1968	<모기의 죽음>(이용찬 작)
1970	<洪水>(전홍 작), <돌산 방죽이 넘친다>(오재호), <여기에서 살린다>(최풍 작), <연못에서 鶴이 살았다는 얘기>(차범석 작), <한알의 씨알>(백전교 작), <검은 그림자>(박양원 작), <철길>(김항명 작), <선달 그림>(신태승 작)
1973	<두꺼비의 獨白>(이철향 작), <첫눈>(최호수 작)
1974	<잃은者和 얻은者>(이희복 작), <家族>(심영식 작), <최후의 한사람>(김중희 작.6.25 특집극), <내조국>(김동현 작.8.15특집)
1975	<시골서 살래요>(유호 작)

한편 1962년도에 새로이 마련된 《단막극장》은 《KBS 무대》와 더불어 KA의 대표적인 단막극 프로그램으로서 국민생활의 계몽을 위한 일종의 목적극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1966년까지 지속되었는데 주요 드라마를 정리해 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KBS 《단막극장》(1962~1965)의 주요 단막극

연도	제목 및 작가
1962	<먼동이 트는 언덕>(백운성 작), <살림살이>(정진건 작), <뜨거운 악수>(김중희 작), <화려한 圓舞曲>(허창훈 작)
1964	<여반장>(김자림 작), <새출발>(김창린 작), <아버지>(윤혁민 작), <한줌의 쌀>(한석연 작), <漁村>(신명순 작), <바다>(김홍 작), <오솔단지>(박영만 작), <소 사운 날>(김이석 작), <이들타령>(하유상 작), <동트는 漁村>(한석연 작), <우물안 개구리>(정진건 작), <수제미>(임택수 작), <꿈을 깨는 처녀>(백전교 작), <가불人生>(최일수 작), <두부 한토 과 한단>(김영수 작), <再會>(이기명 작), <내가 받은 선물>(김민 작)
1965	<가난한 사람들>(김아 작), <꽃피는 마을>(김광섭 작), <산>(송숙영 작), <치맛바람>(김포천 작), <가정의 幸福>(이인석 작), <바다를 向하여>(박도원 작), <30리길>(양근승 작), <땅>(윤혁민 작), <그림자>(최요안 작), <마지막 夜景>(김종달 작), <말없는 證人>(김원태 작), <火星人 來襲>(한락원 작), <新式 結婚式>(김원태 작), <발동선>

(추식 작), <그리고 고향길>(하유상 작), <미인계>(최풍 작), <영광의 그날까지>(김중희 작), <낙도에도 햇벌이>(이진섭 작), <夫婦>(이영신 작)

CBS도 《KY극장》과 《CBS 무대》 등을 통해 단막극을 내보냈는데, 특히 전자에서는 김영수 작 <쓸데없는 친구들>, 이희복 작 <老教授와 전세방>, 하유상 작 <뜻밖의 「陷穽」> 등이 방송됐다. MBC는 1965년도에 《예술극장》이 신설되었고 주태익 작 <팔베개 길동무>, 아나톨 프랑스 원작, 최원 각색의 <성모와 곡예사>, 장호 작 <겨울>, 박서림 작 <고향사람>, 전봉건 작 <로맨스 F장조>, 김영수 작 <겨울밤>, 이용찬 작 <옛길> 등의 단막극이 방송되었다. 또한 1967년도에는 《문예극장》을 편성하여 김영호 작 <흙>, 김진욱 작 <마농 레스꼬>, 양근승 작 <거리엔 바람이>, 이인령 작 <유령의 집>, 김수현 작 <나무들 비탈에 서다>, 김소영 작 <태양의 계곡>, 오학영의 <人形의 침실> 등을, 1968년도에는 한운사 작 <대통령 각하>, 신명순 작 <분례기>, 이철향 작 <성녀와 마녀> 등을 방송했다. TBC의 경우는 특별히 단막극으로서 대표될만한 프로그램을 찾기 어려웠으나, 1975년도에 《소설극장》을 통해 문학작품을 각색하여 방송함으로써 문학 대중화와 독자층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도 했다.

DBS의 대표적인 단막극으로는 《명작극장》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1963년 5월 5일 첫 작품이 방송된 이래 1970년 10월 4일 막을 내릴 때까지 모두 340편의 작품이 방송되었는데,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문예물을 전파에 띄움으로써 고급 청취자들의 취향에 부응하고자 했다. [표 14]³⁷⁾에 나타나 있듯이 해외 걸작 시리즈, 해외 걸작 방송극, 한국 명작 단편선, 광복 20주년 전후 작품선, 신예작가 10선, 방송극 작가 자선작(自選作), 신예 방송극작가 대표작 시리즈 해외 명작선, 신춘문예 입선작 등 다양한 부문의 작품들이 방송되었고, 임영웅이 거의 독보적인 연출 작업을 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37) [표 14]는 『東亞放送史』(1990), 227~228면 참조.

[표 14] DBS 《명작극장》의 주요 단막극

타이틀	제목 및 작가(연출, 각색)
해외 걸작 시리즈	<비갯덩어리>(기 드 모파상 작/유보상, 이희복 연출), <약혼녀>(안톤 체홉 작/구석봉, 이희복 연출), <검은 고양이>(에드가 앨러 포우 작/박순녀, 이희복 연출), <고양이와 피이프공>(아서 밀러 작/이완석, 이병주 연출), <商船 테네시타 號>(샤를 빌드락 작/신명순, 이희복 연출), <사나이>(일렉산드르 푸슈킨 작/하지동, 이병주 연출), <바다와 노인>(어니스트 헤밍웨이 작/구석봉, 이병주 연출)
해외 걸작 방송극	<할아버지와 자유와 女神像>(아서 밀러 작/임정도, 임영웅 연출), <문밖에서>(볼프강 보르헤르트 작/신명순, 임영웅 연출), <잘못 걸렸습니다>(주실 플레처 작/박우보, 임영웅 연출), <감자>(김동인 작/김기팔, 임영웅 연출)
한국 명작 단편선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작/신명순, 임영웅 연출), <城隍堂>(정미석 작/정인섭, 임영웅 연출)
광복 20주년 전후 작품선	<謀反>(오상원 작/정진건, 임영웅 연출), <暗射地帶>(서기원 작/신명순, 임영웅 연출)
신예작가 10선	<現場>(남정현 작/신명순, 임영웅 연출), <題目 없는 女人>(이문희 작/박민규, 임영웅 연출)
방송극 작가 자선작(自選作)	<소슬한 바람>(김희창 작/임영웅 연출), <형수>(조남사 작/임영웅 연출), <상처>(한운사 작/임영웅 연출)
신예 방송극작가 대표작 시리즈	<무사고운행>(신명순 작/임영웅 연출), <정어리>(이희복 작/임영웅 연출), <새벽 나그네>(김포천 작/임영웅 연출), <겨울>(심영식 작/임영웅 연출)
해외 명작선	<따마고>(프로스페르 메리메 작/박완, 이병주), <草原>(레이 부다르 버리 작/홍대복, 이병주 연출)
신춘문예 입선작	<林總理>(김병로 작/유홍렬, 안평선 연출), <暴雨>(백인빈 작/오학영, 안평선 연출)

3.2.1. 라디오 드라마의 예술성을 시도한 단막극

위에서 단막극 프로그램 방송 현황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방송사의 단막극 편성은 방송극의 예술성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창작극을 비롯하여 국내외 걸작 방송극이나 국내외 명작 각색물들이 방송된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KBS의 《KBS 무대》는 방송극의 예술성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역사깊은 프로그램으로서 여러 번의 프로그램 개편에서도 부동의 자리를 지켜왔고 고정 청취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³⁸⁾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주로 순수 창작 단막극을 매주 방송하여 방송의 창작문화를 선도했고, 아울러 방송 후에는 개작의 과정을 거쳐 TV 드라마로, 소설로, 희곡으로 재발표되기도 하면서 문학의 한 장르로서 가능성을 보여

38) 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출판, 1995, 272면.

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방송 작가의 등용문으로 또 기성 작가들에게는 방송문예적 표현의 장으로서 역할을 해 왔으며,³⁹⁾ 이후 타 방송사의 단막극 편성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CBS의 《KY극장》과 《CBS 무대》 등도 당대 지명도 있는 방송 극작가들의 단편극을 전파에 내보냄으로써 《KBS 무대》와 대당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이후 1960년대에 개국한 MBC의 《예술극장》과 《문예극장》, TBC의 《소설극장》, DBS의 《명작극장》 등도 위 두 방송사와 지향점을 같이 하여 완성도 높은 방송극이나 문예물을 기획한 프로그램들이다.

각 방송사의 단막극 프로그램은 완성도 높은 창작극이나 국내외 우수 작품들을 각색 방송함으로써 고급 청취자들의 취향에 부응하고자 했으며, 결과적으로 통속적인 멜로드라마가 주류를 이루던 당시의 풍토를 쇠신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3.3. 봄을 이룬 홈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드라마

3.3.1. 장기화된 홈드라마

홈드라마란 말 그대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엮여지며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과 사회로 연결되는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권이 모두 홈드라마의 무대가 된다. 큰 갈등보다는 평범한 사람이 보통의 환경에서 겪는 건강한 삶을 그리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⁴⁰⁾

1960~70년대 KBS의 대표적인 홈



[그림 6] 「웃음과 인정의 홈·드라마! 아차부인 재치부인」(『중앙일보』, 1974.6.12)

39) 조원석 편, 『KBS 무대』, 문예마당, 1997, 393면.
40) 김연진, 『방송대본의 이해』, 박이정, 2006, 34면.

드라마로는 <즐거운 우리집>(오전 7시 50분)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초기부터 1970년대 초기까지 방송되었던 시츄에이션 홈드라마로서 KBS의 장기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다. 우리나라 중류 가정, 그것도 3대가 한 집 안에 모여 사는 대가족을 배경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애환을 그리고 있는 드라마이다.⁴¹⁾ 1970년대에 들어서서 <즐거운 우리집>은 계몽성이 강화되는데, 서민의 일상을 소재로 하여 국민생활을 계도하고 명랑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극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⁴²⁾

MBC는 1966년도 시츄에이션 홈드라마인 <오늘도 푸른 하늘>(오전 7시 15분)과 <우리 아빠 最高>(오후 7시 35분)가 청취자의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다. <오늘도 푸른 하늘>은 서울 변두리의 소시민층 가정을 배경으로 박봉의 선량한 애처가와 현모양처형의 부인이 엮어가는 서민생활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이다. 프로듀서는 김영효였고 주태익, 노능걸이 차례로 원고를 집필했으며, 출연진은 아버지 김영식, 박웅, 어머니 김윤희, 어린 아들에 이은미 등이었다.⁴³⁾ <우리 아빠 最高>는 전자와 대비되어 도시의 중류층 가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중류층 지식인의 샐러리맨이 직장과 가정에서 겪는 일상생활을 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유호 작, 변하림 연출로 제작되어 1965년까지 방송되다가 이후 1966년 8월에 중방하기까지 이용찬 작, 연출로 진행되었다. 출연진으로 할아버지 이춘사, 아빠 구민, 엄마 고은정, 아들 남일우, 딸 김수희, 매부 이순재, 아역에 김영옥, 이은미 등이 활약했다.⁴⁴⁾

TBC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방송된 <아차부인 재치부인>(오전 7시 20분)을 대표적인 홈드라마로 꼽을 수 있다. 같은 시간대에 타 방송사에서 유사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지만, 특히 <아차부인 재치부인>은

41) 『즐거운 우리집』, 『주간방송』, 1964.10.16.

42)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513면.

43) 『白回를 記念한 드라마』, 『주간방송』, 1964.10.24.

44) 『우리 아빠 最高』, 『주간방송』, 1965.1.30.

TBC 드라마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샬러리맨’의 애환을 꾸밈없이 묘사하고 서민의 생활상을 구석 구석까지 파헤쳐 청취자의 공감을 얻었는데, 개국기인 1965년 10월 1일부터 방송되어 1980년 11월 19일 한국 방송공사(KBS)로 통합될 때까지 초창기 포맷 그대로 5,900여회를 기록할 정도로 최장수 프로그램이었다.⁴⁵⁾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방송사마다 홈드라마가 편성되었고, 주로 청취자들의 호응 속에 장기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멜로물의 연속극, 문예물로서의 단막극 외에도 그 한 축에서는 이와 성격을 달리하는 홈드라마가 인기 드라마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3.3.2. 다큐멘터리 드라마 붐

1960년대 말부터 한국의 방송계는 다큐멘터리 붐이 일어났다. KBS의 경우 1960년도부터 다큐멘터리물로 <陽地를 찾아서>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인내와 노력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난 인간 승리의 주인공과 선행의 주인공을 찾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로서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30분간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어 청취자의 심금을 울렸다. 1968년도부터는 《KBS 연속극》 시간에도 다큐멘터리 드라마 <대한민국 20년>(윤혁민 구성, 광현 연출)을 기획하여 정부수립의 배경 과정에서부터 6·25전란 복구, 4·19, 5·16 그리고 경제 건설기에 이르기까지를 다루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관계자의 육성녹음을 곁들여 사실(史實)을 극화하여 방송하였다. 그 후 1972년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편성되면서 <알타에서 판문점까지>(김중희 구성), <봉선화>(김경옥 구성), <독야청청>(조흔과 구성) 등이 방송되었고 이후 《KBS 연속극》 시간에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장기간 방송되었다.⁴⁶⁾

KBS의 또 다른 유형의 다큐멘터리물로 <김삿갓 방랑기>를 하나 더 들

45) 『아빠하고 나하고』, 『주간방송』, 1964.10.24.

46)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426~427면.

수 있다. 이 드라마는 청취자의 관심 속에서 장기 프로그램으로 방송되었는데 1964년 4월, 5분 방송으로 출발하였다. 1978년 3월 12일 당시 이 프로그램은 5천회를 맞아 한국방송사상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최장수를 기록했다. 이 다큐멘터리는 유일한 반공 시추에이션 드라마로 방송 시작 당시 김광섭 극본, 이상만 연출에 오정환이 김삿갓 역을 맡아 <김삿갓 북한 방랑기>로 출발했으며,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2년에는 ‘북한’ 자를 빼 버린 <김삿갓 방랑기>로 개칭했다. 작가로는 이철주, 김광섭, 최봉 등이 가장 많이 활약했고 이밖에 김영수, 주태익, 박우보, 김진환, 원남운, 백전교, 연용모, 윤혁민, 이기명, 김천, 최홍목, 김지수 등이 참가했다.⁴⁷⁾

한편 CBS에서도 대하드라마적인 성격과는 다르지만 다큐멘터리물로 <이것이 人生이다>가 인기리에 방송되었다. 1959년 11월 6일부터 1966년 5월 30일까지 금요방송극으로 방송되었는데 주태익 작으로서 여러 연출가들의 손을 거쳐 제작되었다. 이 드라마는 우리 방송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우화극(寓話劇)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⁴⁸⁾ 청취자의 기구한 사연을 극화해서 생생하게 엮어가는 방송극으로, 인생과 신앙의 파노라마를 펼치는 진지성을 띤 수작으로 청취자들의 애청(愛聽)물이었다.⁴⁹⁾ CBS는 이 외에도 <실화극장>과 <희망무대> 등을 방송하기도 했는데 전자는 사랑과 박애 등 선의를 행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후자는 타이틀처럼 꿈을 갖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인물군을 제시한 내용이다. ‘대중 속에 지성을 심는다’⁵⁰⁾는 캐치프레이즈로 종교, 사회, 문화, 예술에 걸쳐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지향했던 CBS의 면모를 보여준다.

MBC에서도 1960년대에 <북한 7천 3백일>을 기획 방송하여 멜로드라마보다 청취율을 높이기도 했다.⁵¹⁾ 특히 MBC는 1970년대에 들어 대하드

47) 『KBS라디오 <김삿갓 방랑기> 단일프로로는 사상 최장』, 『조선일보』, 1978.3.12.

48)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763면.

49) 『앵콜씨리즈』, 『주간방송』, 1965.1.16.

50) 放送年鑑編纂委員會, 앞의 책, 101면.

51)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425면.

라마의 기획과 함께 다큐멘터리물의 강세를 보였다. 1971년도에 신설된 다큐멘터리는 이재우 작, 고무송 연출의 <38선>과 대공수사 실화극인 <제3의 증언> 등이었다. 1973년도에는 대하드라마 <英雄이 간다>와 상담(相談) 실화극인 <행복의 열쇠> 등이 방송되었고, 1974년도에는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신라 천년>이, 1975년도에는 <첩보원>, <스포츠 실화극> 등이 신설되어 드라마의 새로운 유형을 개발하기도 했다.⁵²⁾ 또한 1970년대 세미 다큐멘터리인 <法窓夜話>는 해방 이후부터 당대까지 일어난 주요 사건을 소재로 하여 당대에 많은 청취자를 불러 모은 드라마로서 작가 최풍에 의해 10권의 책으로 소설화되기도 했다.⁵³⁾

한편 MBC의 또 다른 성격의 다큐멘터리인 <絶望은 없다>는 역경을 극복하는 실재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으로서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집필진은 김중희, 정진건, 오학영, 이재우, 구석봉, 박수복, 박서립 등이었고 연출은 박수복이었다.⁵⁴⁾ 또한 <傳説따라 三千里>도 MBC의 대표급 드라마로서 한국의 문허진 전설을 발굴하여 현대적 의미로 되새겨 보는 다큐멘터리였다. 1966년도 5월 2일 방송이 시작된 이후, 문화방송의 장수 프로그램의 하나로 청취자의 흥미를 집중시킨 프로그램이었으며, 초기에는 민병훈 극본, 고무송 연출, 유기현 해설로, 이후 여러 작가와 연출가의 손을 거쳐 방송극으로 나갔다.⁵⁵⁾

동아방송 DBS는 1963년 개국 초기부터 기존 방송 내용의 유형적인 틀과 매너리즘을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개국 시기 개시했던 <여명 80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드라마로서 갑신정변에서부터 8·15 해방에 이르는 80년의 우리 근대사를 김경옥 극본, 오사랑 연출로 드라마화한 것이다. 멜로드라마가 주종을 이루던 당시, 다

52) 文化放送社, 앞의 책, 298~301면.

53) 「<法窓夜話>를 소설로 펴낸 崔豊씨」, 『조선일보』, 1975.7.23.

54) 「의로운 人間像」, 『주간방송』, 1964.10.24.

55) 「<전설따라 삼천리> 4,000회 돌파」, 『조선일보』, 1978.7.9.

큐멘터리 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연 방송극으로 1964년 6월 28일 360여회로 막을 내릴 때까지 집필은 김경옥, PD는 사상완 등이 담당했던 대기획물이었다. <여명 80년>은 종막 이후 곧 출판되었고 『한국일보』의 출판문화상의 저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⁵⁶⁾ <여명 80년>을 필두로 개척한 DBS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영역은 <어느 실화>, <조선총독부> 등 연속장편물들이 그 맥을 이으며 토대를 다졌다. 1968년에는 <연속비화 판문점>, <사건세계사>, <한국찬가>, <태평양전쟁> 등 4개의 대형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고, 1969년에는 <한국전쟁>과 <한국독립투쟁비화>가 방송 개시했고 1970년에는 <동아반세기>, <정계야화>, <특별수사본부> 등 3개의 드라마가 신설돼 이 시기에는 7개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1970년대 초반에 그 절정을 이룬 다큐멘터리 분야는 1973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1975년에는 <제1공화국>, 1976년에는 <개항 100년>과 <피의 장막 30년>이 방송되는 등 그 1970년대 중후반기까지 그 붐이 이어졌다.

또한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DBS의 <이 사람을>은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제작된 실화자선극으로 청취자들의 편지 속에서 심금을 울릴 만한 이야기의 주인공을 등장시킨 드라마이다. 실존인물의 불우한 생활을 극화하면서 주인공과의 인터뷰 내용도 삽입하여 생동감 있게 내용을 전개했다. 극본은 김기팔, 연출은 오사랑, 김기하 등이었고, 나레이터 김주환은 스타로 부상하였다.⁵⁷⁾

TBC는 1967년 8월 7일 다큐멘터리 <光復 20年>으로 획기적인 쾌거를 올렸다. PD 정인섭과 작가 이영신, 김교식의 팀웍으로 해방 이후의 정치백서들을 흥미롭게 전개시켜 나간 다큐멘터리 드라마이다.⁵⁸⁾ 1967년 8월 7일 이승만 박사의 생생한 육성인 전파를 타면서 시작된 <光復 20年>은

56) 東亞日報社, 앞의 책, 105~106면.

57) 「이 사람을!」, 『주간방송』, 1964.11.5.

58) 韓國放送公事, 앞의 책, 824면.

많은 일화를 남긴 것은 물론 방송 뿐 아니라 신문·잡지 등에 '다큐멘터리·봄'을 일으키기도 했다. 1977년 9월 30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까지 단일 포맷으로 매일 방송되어 10년 1개월 23일(3,670회)을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방송 사상 처음이었다. 종방하기까지 건국 전후의 비화, 거창 양민 학살 사건, 백범 사건, 남북 협상, 장 부통령 저격 사건, 김창룡 사건 등 해방 뒤의 주요 사건 3백여 건이 관계 인사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 밀도있게 다루어졌다.⁵⁹⁾ TBC는 <光復 20年>으로 전범을 보이며 <近世大韓百年>, <民族의 血脈> 등이 인기리에 방송되었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의 시류를 타고 1970년 8월에 시작한 <일제 36년사>, 1974년 10월 이후 <협객 김두한> 등 세미다큐멘터리 반공 수사물 등도 다큐멘터리로서 청취자의 반응을 얻었다.⁶⁰⁾

지금까지 각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방송 현황을 살펴 보았다. 보다시피 각 방송사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다수 방송되고 있었다. 이러한 드라마 형태는 이미 1960년대 초기부터 있어 왔지만, 특히 1970년대에 들어 더욱 융성하였음을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TV의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수상기의 보급률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라디오의 청취자들은 텔레비전의 시청자로 옮겨감으로써 라디오라는 매체는 새롭게 변화해야 할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 결과 보통 한달 분량으로 방송되던 멜로드라마 대신 두 달 이상의 대하물이 자주 기획되기 시작하였고, 장기간 지속되는 다큐멘터리물이 늘어나게 되었다.⁶¹⁾ 이러한 배경 하에서 다큐멘터리 드라마는 각 방송사에서 봄을 타고 방송된 것이다.

59) 「<光復 20年> 10年 만에 幕 내려」, 『중앙일보』, 1977.9.30.

60) 韓國放送公社, 앞의 책, 798면.

61) 최창봉, 강현두, 앞의 책, 163면.

4. 맺음말

1960년대 이후 우리 방송사는 본격적인 민간방송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국영방송 KBS와 기독교방송 CBS에다 1961년 문화방송(MBC) 라디오가 개국했고, 여기에 1963년 4월에는 동아방송(DBS), 동양방송(TBC) 등의 방송사가 출현하여 다양한 방송 문화가 개화한 시기이다. 이에 따라 국영방송과 민영방송, 또한 민영방송 상호간의 청취율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기도 했다. 또한 새로운 민간 상업방송국이 속속 개국하고 출력도 높아지면서 이들의 시장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 수신기의 보급과 광고 시장도 함께 성장해 갔다. 특히 광고 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방송사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라디오 수신기의 원활한 보급과 광고료 수익으로 인하여 민간 상업방송은 성장세를 가져왔고 당시 현대 대중매체로서 라디오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연에 오락 방송이 만발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까지 텔레비전이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 시기였기에 특히 라디오 방송극은 서민 대중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초기에 청취자들의 인기 정점에 있었던 라디오 드라마의 전개 양상을 살피고자 했다. 이의 분석을 위해 첫째로 살펴 본 것은 이 시기의 라디오 드라마 편성 비중과 각 방송사의 방송극 분야 신인 발굴 사업 현황이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이 시기는 KBS, CBS, MBC, DBS, TBC 등 기존 국영방송사 뿐만 아니라 각종 민영방송사의 개국으로 라디오 경쟁시대였다. 특히 청취자의 호응도가 가장 높았던 라디오 드라마의 경쟁은 더욱 치열했다. 이에 각 방송사의 드라마 편성 현황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그 결과 각 방송사의 라디오 드라마는 황금시간대에 주로 편성되어 경쟁적으로 방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도와 중요성의 증가로 방송작가의 양성과 새로운 작품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다. 이에 각 방송사의 현상모집과 학생 방송 경연대회의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각 방송사의 당선작들은 라디오 드라마로 방송되어 결과적으로 새로운 드라마를 양산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신인 발굴의 결실을 보았는데, 이는 당시 라디오 드라마의 비중이 그만큼 높았고 이에 새로운 작가와 작품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현상 모집과 걸맞게 <방송 문예>라는 프로그램으로 방송극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그 창작론에 대한 시간을 마련했다는 점과 작법 교본 및 라디오 대본의 출판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라디오 드라마에 대한 일반의 관심과 그 성숙 정도를 짐작케 해 준다.

둘째로 라디오 드라마의 실체를 연속극, 단막극, 홈드라마, 다큐멘터리 드라마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방송사별 방송 현황을 보면 당시 드라마의 비율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사실에 근거하여 방송사별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KBS 연속극 중에서는 《라디오 극장》과 《KBS 연속극》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연속극 내용은 주로 현대 멜로물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KBS 단막극의 대표로서 손꼽히는 드라마로는 바로 《KBS 무대》와 《단막극장》이 있었다. 특히 《KBS 무대》는 순수 단막극으로 1954년에 편성돼서 1975년대 당시까지 2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드라마이며 민영방송에서도 설립 당초에 이를 본받아 유사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이 단막극 무대는 방송극의 예술성과 그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역사깊은 프로그램으로서 여러 번의 프로그램 개편에서도 부동의 자리를 지켜왔고 고정 청취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도 초반에 <陽地를 찾아서>를 필두로 이후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하여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CBS 기독교방송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예 프로그램의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애정극, 추리극, 인생극, 시대극 등

그 내용과 형식에도 다양성을 보였다. CBS의 방송극을 타이틀별로 보면, 일요일에 연속극, 월요일에 단막극 <KY극장>, 화요일에는 <유머극>, 목요일에는 <목요연속극>, 금요일에는 다큐멘터리인 <이것이 人生이다>가 방송되었다. 특히 다큐멘터리물로 <이것이 人生이다>는 우리 방송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우화극(寓話劇)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CBS의 연예 오락 부문은 타 방송사에 비하여 시간 배당 비율이 낮았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면 더욱 그러한데, 1950년대 말까지 국민 대표 방송에 속했던 CBS는 1960년대부터 민간방송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후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MBC 문화방송은 《연속무대》, 《연속방송극》, 《주말연속극》, 《연속입체낭독》, 《연속모험극》, 《홈드라마》, 《예술극장》, 《청소년극장》, 《연속모험극》 등 다양한 타이틀로 연속극을 방송하였다. 특히 1965년 이후 연속방송극은 8시대, 9시대, 10시대 등 각 시간대마다 편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MBC가 드라마 부분에 그만큼 방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술성의 지향의 단막극으로는 《예술극장》과 《문예극장》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MBC는 1970년대에 들어 다큐멘터리의 강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絶望은 없다> 등은 청취자의 호응을 얻기도 했다.

DBS 동아방송은 1963년 개국 초기부터 기존 방송 내용의 유형적인 틀과 매너리즘을 탈피하고자 노력하였다. 개국 시기 우리나라 최초의 다큐멘터리 드라마인 <여명 80年>에서 1976년 <특별수사본부>에 이어지는 일련의 다큐멘터리 드라마, 본격 ‘실화자선극(實話慈善劇) <이 사람을>을 비롯해서 DBS는 개국기부터 한국방송사상 최초로 본격적인 다큐멘터리 드라마를 시도하고 이후 전성기를 구축했다. 또한 《명작극장》을 통해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문예물을 방송함으로써 고급 청취자들의 취향에 부응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푸른 하늘>, <우리 아빠 최고> 등의 시추에이션 홈 드라마와 《연속방송극》 등도 기획하여 드라마의 다양성을 시도하고자 했다.

TBC 동양방송은 KBS, CBS, MBC, DBS에 이어 다섯 번째 방송국으로 탄생하였다. 문화방송(MBC)과 동아방송(DBS) 등의 민간 상업방송이 기존해 있는 현실 속에서 뒤늦게 출발한 동양방송은 방송 경쟁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 중 청취자의 인기 정점에 있는 방송국 경쟁은 더욱 치열하였다. 그래서 TBC 라디오는 방송국에 큰 비중을 두고 출발하였다. 이는 개국 전에 50만원의 고료로 방송문예작품을 공모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연속극의 시간대를 옮기는 전략으로서 드라마의 선두에 서기도 했다. 또한 <아차부인 재치부인>, <광복 20년> 등 장수 프로그램의 홈드라마와 다큐멘터리 드라마로 청취자들을 사로잡기도 했다.

이상 살펴 보았듯이 1960년부터 1970년대 초기에 각 방송사마다 라디오 드라마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속극은 방송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단연 톱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꾸준히 인기 상승의 길을 밟았다. 또한 순수 방송극이 아니어도 드라마의 형식을 빌린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의 관심을 모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라디오 드라마가 방송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朝鮮日報』(1920~1979)
- 『東亞日報』(1920~1979)
- 『조선중앙일보』(1933~1936)
- 『中外日報』(1926~1931)
- 『中央日報』(1965~1979)
- 『주간방송』(1964~1965)

2. 논문 및 논저

- 강현구, 「1940년대 방송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18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 강현두 외, 『韓國放送論』나남출판, 1989.
- 김규, 『방송미디어』, 나남출판, 1996.
- 김상교, 극예술연구회의 방송극 연구, 『한국연극학』 제12집, 한국연극학회, 1999.
- 김연진, 『방송대본의 이해』, 박이정, 2006.
- 김영희, 일제시기 라디오의 출현과 청취자, 『한국언론학보』 제46집, 한국언론학회, 2002.
- 노정팔, 『한국방송과 50년』, 나남출판, 1995.
- 年刊 씨나리오 選集刊行會(1960), 『年刊 씨나리오 選集(1959年度)』, 成文閣, 1960.
- 東亞日報社, 『東亞放送史』, 東亞日報社, 1990.
- 文化放送社, 『文化放送社史』, 文化放送社, 1982.
- 문화방송 30년사 편찬위원회, 『文化放送三十年史』, 문화방송, 1992.
- 放送年鑑編纂委員會, 『韓國放送年監 1971』, 韓國放送會館, 1970.
- 放送文化振興會, 『韓國放送總覽』, 나남, 1991.
- 양진문, 한국 방송극의 역사적 고찰, 『한국연극연구』 제5집, 한국연극사학회, 2003.
- 이내수, 『이야기 방송사』,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1.
- 李範環, 『韓國放送史』, 범우사, 1994.
- 임중수, 「한국방송의 기원: 초기 라디오 방송에서 제도, 편성, 장르의 형성과 진화」, 『韓國言論學 報』 48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4.
- 嚴玄燮, 韓國 近代 미디어 텍스트의 劇樣式 研究,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5.
- 조원석 편, 『KBS 무대』, 문예마당, 1997.
- 조항제, 『한국방송의 역사와 전망』, 한울, 2003.
- 鄭淳日, 『한국방송의 어제와 오늘』, 나남출판, 1991.
- 정진석 외, 『한국방송 80년, 그 역사적 조명』, 나남출판, 2008.
- 최풍, 『法窓夜話 -幽靈의 便紙』, 明書苑, 1975.
- 최창봉·강현두, 『우리 방송 100년』, 현암사, 2002.
- 韓國放送公社, 『韓國放送史』, 韓國放送公社, 1977.
- 한국방송협회, 『방송편성론』, 나남출판, 2000.

韓國放送史料保存會, 『寫眞으로 보는 韓國放送史 卷二』, 韓國放送史料保存會, 1995.

황유성, 『초창기 한국방송의 특성』, 법문사, 2008.

Abstract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Radio Drama from 1960's until the beginning of 1970's.

Yeun, Keum-sun

This research is that examine actual state of Radio Drama from 1960's until 1970's. Listeners had an interest to a radio very much from 1960's to the beginning of 1970's. Specially, a multiple Radio drama was broadcasted by each broadcasting companies in these times. Besides, listeners heard of Radio Drama.

This study tries to considered stream of a general Radio Drama at that time. The contents that analyzed concretely in this study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e first, This study reviewed about general present situations and broadcast regulation of 1960's radio broadcast and broadcast groups etc. These times privately-managed broadcasting companies such as CBS, MBC, DBS, TBC and KBS governmental broadcasting dueled over radio audience. As broadcasting companies rivaled each other. And broadcast regulation was necessary.

The second, this research tried to check about new face excavation businesses of each broadcasting company. Therefore, this research consider that hold a prize contest for radio drama and university student broadcast contest.

The third, this study considered the real of a radio drama of each broadcasting company. And this research considered an organization tendency of contemporary radiobroadcast. Also it considered roughly the soap opera of this each broadcasting company and the one-act play, the the domestic dramas and the documentary drama

etc.

Key words : Radio Drama, KBS, CBS, MBC, DBS, TBC, radio audience, new face excavation businesses, a prize contest, student broadcast contest, soap opera, one-act play, domestic dramas, documentary drama

접 수 일 : 2010년 8월 31일

심사기간 : 2010년 9월 1일~9월 30일

게재결정 : 2010년 9월 30일